朝鮮日報
夕刊
四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樞府方面도 反政府氣勢
總選擧後의 情勢樂觀不許로
鹽野法相、時局收拾工作開始
庶政革新斷行내걸고

【東京電話同盟】政府는 總選擧後의 情勢가 容易히 樂觀을 不許하고 政黨도 勿論 最近樞府方面에도 漸次反政府的空氣가 釀成되엿는데 鑑하야 今後特別議會까지 重臣、樞密院及軍部各方面에 對하야 鋭意局面打開工作에 努力하기로되엿다 其打開工作에는 主로 鹽野法相이 中心的役割을 演出하리라고 觀測된다 爲先그 第一着手로 鹽野法相은 三日午後八時 西大久保私邸에 平沼樞府議長을 訪問하고 同九時二十分까지 一時間餘에 亘하야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右會談에잇서 法相은 總選擧後의 狀態를 委細報告하는 同時에 三日緊急閣議까지의 經過 今後政局에 對處할 政府의 根本方針을 說明하고 今後 다시 政府로서 此際 逡巡하지말고 어데까지 庶政革新斷行을 目標로 特別議會에 邁進할 수밧게업는 實情을 披瀝하야 平沼男의 諒解를 求한것이라고 解釋되는데 法相의 動靜은 現下政局에 重要한 役割이 되리라고 注目된다 (寫眞은 鹽野法相)

政府와 政黨間
一波瀾은 未免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今回의 總選擧結果 新議員에 對하야 時局認識을 갓게 된것이라고 認定하고 三日閣議에서도 右見解에 基하야 爲先文部 鐵道 拓務三省을 補充하고 解散後의 特別議會에는 政府가 抱懷한 革新政策을 提案하야 政黨側의 協力을 求하기로하고 政黨이 이에 應치안을 境遇에는 斷乎히 再解散을 不辭하는 强硬態度를 決定하게 되엿다 이에 對하야 總選擧後 林內閣은 退陣할것이라는 旗幟를 揭하고 國民에게 訴하여온 政民兩黨及 社大黨의 反政府陣容은 如何한 態度를 取할는지 자못 注目되는데 政民兩黨으로서는 從來에 主張하여온 反政府精神을 轉換하기는 不可能할 으로 兩黨首腦部는 互相提携하야 政府의 退却을 要望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總選擧前後에 新黨運動 或은 政府與黨을 增加할 目的으로서 工作하던 政府의 손은 政民兩黨에 相當히 浸潤되여잇고 一方 兩黨內의 反幹部派의 策動도 잇슴으로 兩黨提携가 어느 程度까지 迫力을 갓고잇는지 아직도 多大한 疑問이 잇다 政府가 政黨과 決戰할 覺悟로서 臨할 境遇 政黨이 再次解散의 苦杯를 甘受하면서 政府와 一戰을 交할 決意를 鞏固히 하고 斷乎不信任案을 提出할 수잇슬는지는 자못 疑問인 바 今後의 政局은 政府의 强硬態度에 對應할 政黨의 態度를 中心으로 波瀾을 免치 못하리라고 觀測된다

政府退却이 常道
妥協工作의 失敗될것은 無疑
政府聲明과 貴院批判

【東京電話同盟】政府의 聲明에 對하야 貴族院에서는 左와如히 批評하고 잇다
總選擧結果 反政府의 立場에 잇는 政民兩黨이 絕對多數를 獲得하엿슴으로 政府로서는 此際 潔白히 後退할것은 常道인데 政府는 我國獨得한 憲法政治의 發達을 期한다는것을 表面의 理由로하야 어데까지 時局匡救에 邁進할 決意를 굿게한 結果 聲明書를 發表함에 이른것일것이다 政爭을 超越한 解散 滅私奉公 或은 바른時局認識下에 大政翼贊의 實現을 들고잇스나 이것만으로는 國民은 首肯치안흘것이다
要컨대 政府의 眞意는 特別議會를 憲法의 最大限度인 五個月間延期하야 此間政黨間에 妥協工作을 行하는 同時에 一般國民의 期待에 合할 革新政策을 樹立하야 特別議會에 臨하려는 意向임은 明白하다 그러나 政民兩黨이 現在와 如히 互相提携하야 反政府의 旗幟를 鮮明히 하고 나아가는 以上 政府가 豫期한 結果를 엇지못할것은 疑心할 餘地가 업다

速히 挂冠할일
◇…麻生書記長 談

【東京電話同盟】政府의 聲明을 보면 如前히 獨善的抽象論的主張뿐이요 自己의 認識으로서 他의 認識을 何等具體的事象에 依치 안코 함부로 批評할다름이다 第七十議會에잇서 政府는 革新政策의 沒却 廣義國防擔當 挾義國防에로의 轉換國民生活安定의 無視以外에는 아모것도업섯다 이러한 政府의 施政方針으로 보드라도 現內閣은 速히 挂冠할것이다 萬若聲明書에 나타난것과가티 政權에 戀戀하면 來特別議會에 臨하야 從來와如한 抽象的言動을 止하고 具體的信念을 堂堂히 發表하야 其可否를 國民大衆에게 問할것이다 我等은 政府、旣成政黨의 遺憾한 態度에 對하야 黨本來의 使命에 鑑하야 黨獨自의 立場에서 國內改革斷行、國民生活安定의 一途에 邁進하려한다

特別議會의 解散은 全然考慮안는다
林首相、樞府委員會에서 答辯

【東京電話同盟】三日樞府企畫廳官制에 關한 審查委員會席上에서 某委員으로부터
一、政府는 今回의 衆議院議員總選擧結果에 鑑하야 衆議院議員選擧法의 根本的改正案을 立案하야 特別議會에 提出할 意思가 잇는가
하는 質問이 잇섯는데 이에 對하야 林首相은 그런생각은 決코업다는 旨를 答하고 다시
總選擧結果 依然政民兩派와 社大가 絕對多數를 獲得하엿슴으로 政務의 圓滑한 運行은 期키 難함으로 再解散을 斷行하리라는 說이 잇는바 그런意思가 잇는가 特別議會를 解散하고 이에 依하야 總選擧를 行할생각인가
하는 質問에 對하야 林首相은 그러한 생각은 全然 업다고 答하엿다

佐藤外相時局談
操急은 不可!

【東京電話同盟】新任奉告次로 西下中이든 佐藤外相은 三日午後八時 東京驛着歸東하엿는데 現下의 政局及外交情勢에 對하야 左와如히 말하엿다
總選擧는 豫想과가튼 結果로 終了되엿다 政府는 再解散이나 總辭職이나 兩者中一途를 擇할 수밧게업스리라고 思하나 現在의 政府는 반드시 이 情勢대로 動하리라고도 斷定할수업다 政黨은 政黨에 맛는 內閣을 實現식힐 能力이 업는 限 不信任案을 提出치못할 것이다 假令 不信任案을 提出할 境遇 再解散을 斷行할는지안할는지 自己는 말할수업다 中國問題는 操急하게 해서는안된다 一九一五年頃의 英國으로마치 現在의 日本의 立場과 同樣으로 中國과는 사이가조치못하엿다 今日의 優越的地位를 回復함에는 十年을 要한것을 想起할 必要가잇다 故로 日本은 充分히 이點을 考慮하여야할 것이다 中國側이 國交調整에 잇서 日本側의 이니시에티브를 要望하는 事情에서 「끼브앤드테익크」의 互惠主義도 局面打開에 當하면 效果가 잇슬지 모르되 日中問題는 자못 重大함으로 愼重을 要한다 國際經濟會議開催에 對하여는 英佛關係도 從來보다 好轉되엿슴으로 期待가 薄弱하지는 안타

總督府十三年度 豫算編成에 着手
要求額膨大、四億五千萬臺到達

半島의 全面的飛躍에 對處하야 成立한 四億一千四百萬圓의 膨大豫算實行에 伴하야 總督府에서는 다시 次期飛躍에 考慮하기爲하야 마침내 昭和十三年度豫算編成에 進出하기로되엿다 卽 各局에서는 五月末까지에 所管各課의 事業計畫을 綜合하야 六月初各局에서 豫算局議를 開하고 六月中旬에는 財務局에 提出하기로 決定하고 各其各課에 通達하엿슴으로 各課에서는 新規計畫事業의 具體案作成에 着手하기로 되엿는데 明年豫算에는 南總督就任第二年에 闡明한 國體明徵 鮮滿一如 農工併進 教學振作及 庶政刷新의 五大政綱의 具體的實行案이 包含되여 各種事業을 通하야 南政策의 徹底的遂行化가 實現되리라고 觀測된다 昨年의 產業經濟調查會答申에 基한 國策的產業의 積極的助成 貿易의 伸張 教育振興及 社會事業의 擴充 第二次警備陣의 擴充强化를 爲始하야 治山治水 港灣 鐵道 通信 產業土木等 各種事業에 相當한 所要經費가 要求되므로 十三年度要求豫算은 아마 四億五千萬臺를 超過하는 巨額에 達하리라고 推測된다

警察部長會議第二日

各道警察部長會議第二日은 四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會 前日에 繼續하야 各部長으로부터 各其管內狀況報告가 잇고 總督諮問에 對한 答申審議를 行하엿다

各道山林課長會議
五日부터 總督府에서 開催

各道山林課長 林務主任官會議는 明五日부터 四日間 總督府에서 開催될터이다 昨年의 產業經濟調查會及 治水調查會의 答申의 砂防事業의 全面的 實施 民有林野利用區分調查 朝鮮林業開發會社設立等의 整理 今年度新規事業을 中心으로 協議하게될터이다 그리고 會議는 矢島農林局長統制下에 左의日程으로 行할터이다
▲第一日(五日) 政務總監訓示 農林局長演示、指示注意
▲第二日(六日) 答申 協議
▲第三日(七日) 聽取事項答申 協議
▲第四日(八日) 協議

人事·集會

▲林財務局長 滿洲國會計制度視察次 四日午後十一時十分 京城驛發奉天經由 滿洲國에 出張
▲大竹內務局長 同上 來十二日歸任豫定
▲柳生總督府社會課長 四日午後二時四十分 東京大阪方面에 出張
▲金圭冕氏(京城商工會議所議員) 商工運動會終了人事次來社
▲藤澤秀三郞氏(京畿道保安課長) 新任人事次來社

三閣僚의 補充에 政府難關逢着乎
政黨側은 勿論、入閣應諾者無乎

【東京電話同盟】政府는 三日今後의 政局에 處키爲하야 獨善的聲明을 發하고 그대로나가기로 方針을定하고 今後政黨의 態度를 보기로 爲先政府의 陣容을 整備하고 特別議會를 目標로하야 일즉이 聲明한
一、文政의 刷新
一、政治의 刷新과 行政改善
一、擧國一致外交政策確立
一、軍備의 充實
一、社會敎育의 徹底와 國民生活의 安定
一、產業의 綜合的振興과 國力의 伸張
一、農山漁村의 更生
一、稅制의 整理와 物價對策
等所謂八大政策의 具體化에 努力키로되엿는데 去七十議會의 實績에 鑑하야 目下欠員中의 文部 鐵道 拓務의 三相으로 잇는대로 速히 補充할 方針下에 林首相이 中心이되여 銓考를 急行하고 잇는데 銓考方針은 어데까지 人材本位로 適任者를 널리 天下에 求한다는 態度로 臨하고 잇으나 政黨側으로부터의 補充에 對하야는 組閣當時 中島知久平 永井柳太郞兩氏에 對하야 黨籍離脫을 要求하엿든것과 同樣으로 今日에도 林首相의 所信에는 何等變化가 업스며 政民兩黨에 今日과如히 反政府的態度를 明瞭히하는 以上 實際問題로 政黨側으로부터 閣僚補充은 到底히 希望업고 文 鐵 拓三相 다 政黨以外의 方面에서 物色할것으로보이는데 政府의 希望하는 人材는 四面楚歌의 內閣에 잇고 이미 餘命이 얼마못되는 現內閣을 閣僚補充에 應諾하리라고 생각지안흠으로 政府는 相當히 難關에 逢着할것으로 보인다

各派投票數內譯
政民激減社大激增

【東京電話同盟】第二十回總選擧結果 各派別投票數에 對하야 內務省警保局에서 調查한바에 依하면
總數 一〇、三一七、二三七票
內 無效投票 一一〇、七三九票
로 有效投票總數는 一〇、二〇六、四九八票로 各派別 內譯은 左와如하야 政民兩黨及國同의 投票數가 激減되고 社大其他無產諸派及 其他團體의 投票數가 顯著히 躍進된 足跡을 示하는것은 注目된다

	當選者	投票總數	前回投票數
民政	一七九	三、六八九、三三六	四、四五六、一六五
政友	一七五	三、六〇五、三七五	四、一九四、二三六
昭和	一九	四三八、三三六	三五二、七二二
國同	一一	三六一、八三四	四三二、六三二
東方	一一	三三七、六六六	無
無產	三八	一、〇一二、八〇二	六六八、九六八
其他團體	八	三三七、三三三	一八四、四六六
中立	三三	六〇四、六六八	七三二、四二九
合計	四六六	一〇、二〇六、四九八	一一、一三一、六六八

獨外相羅馬着
直時伊首相訪問

【羅馬三日發同盟】獨逸外相노이라트男은 伯林駐箚伊太利大使아트리로博士와 同道하야 三日午前十時二十五分 伯林으로부터 羅馬에 到着하엿다 노이라트男은 驛前廣場에서 伊太利兵一個中隊를 閱兵한後 卽時 키지宮을 訪問하고 伊太利外相치아노伯과 會談한다음 베네치아宮에서 뭇솔리니首相을 訪問하고 獨逸大使館에서 열린 午餐會에 出席하엿다가 午後에다시 베네치아宮에서 뭇솔리니首相과 會談하엿다 今回의 會談에서 獨伊兩國代表는 兩國間의 諸懸案을 全面的으로 檢討하는同時에 발칸政局의 一般組織化에 對하여도 協議할터인데 兩國의 基礎工作은 羅馬外交로 圓滿히 進捗되리라고 觀測된다 特히 左의諸點이 注目되고잇다
一、獨墺兩國政府가 一九三六年七月十一日에 締結한 政治協定의 再檢討及擴充案
但、獨逸政府는 墺太利國의 獨立을 尊重하리라고 觀測된다
一、「취코」에 對한 獨逸政府의 企圖
一、伊太利政府가 루마니아와 接近을 企圖하는 關係上 匈牙利政府의 트리아논條約改訂要求는 새로운角度에서 檢討할 必要
一、匈牙利、루마니아兩國과 波蘭과의 關係
一、새로운 카르트노體制에 關한 方針
一、國際經濟會議의 豫想

國民政府는 依然 歐米依存方針
日中問題의 急速解決은 困難
川越大使의 詳細報告

【東京電話同盟】重要事務를 協議키爲하야 一日夜에 歸東한 川越大使는 三日午後一時半 外務省에 佐藤外相을 訪問하고 赴任以來 續發한 不祥事件及其解決을 爲한 日中交涉 西安事變以來今日까지의 情勢經過를 報告하고
日中國交의 局面打開에 對하여는 國民政府의 基礎가 鞏固하고 其統制도 巧妙하고 또實力으로써 共產勢力의 擡頭를 눌럿는데 一面國民政府는 依然 歐米에 依存할 方針으로 日中國交調整도 이때문에 阻害되여잇다 對中外交는 對英米蘇의 國交改善에 影響하는바 多大하고 따라 卽時日中提携를 實現하기는 困難한故로 確乎한 方針을 樹立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北中에잇서서 密輸貿易의 取締에 對하여는 共助해도 조흐나 中國側은 冀東貿易의 解消를 希望함으로 이에依하야 곳兩國國交調整이 可能하다는 明確한見解가 잇다는 極히危險하다
고 現地狀勢를 基礎로한 自己의 見解를 披瀝하고 同二時四十分에 辭去하엿는데 川越大使는 다시 兩三日中에 外相과 會見하고 意見을 開陳할模樣이다 同大使는 帝國政府의 對中外交再檢討에 强한決心을 갓고잇다함으로 其建言內容은 極히 注目된다 (寫眞은 川越大使)

排日아니오 抗日이다
汪精衛氏의 演說

【南京三日發同盟】中央政治委員會委員長 汪精衛氏는 三日中央黨部記念週에 報告演說을 行하야 中國의 對日態度를 左와如히 述하엿다
最近東京大新聞의 中國에對한 論調는 我等에게 極히 多大한 刺戟을 與하엿다 五·三記念週(濟南事變記念)인 今日我等의 日本에對한 態度를 一言하면 抗日이지 排日은아니다 我等은 元來사람에게 害를與할 意思는업다 「抗日」이라는것은 남이 我等에게 害를與할때 抵抗하지안흘수업다는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疑心업시 我等은 最近數年間 臥薪嘗膽 國家의 抵抗力增加에 努力하여왓다 個人으로서 抵抗力이업스면 病魔에걸릴때 死亡하는것이다 國家에 抵抗力이업다고하면 外侮를바들때 國은滅亡할뿐만 아니라 資力도 亦是滅亡하게되는것이다 我等은 今日一切의 工作은 一個의 中心을 가저야할 것이다 이中心이 곳國家의 抵抗力增加를 意味하는것이다 我等은 國家의 抵抗力增加에 貢獻하는가 안하는가 一一히 自省하지안흐면 안된다 單純히 今日과如히 記念日뿐이아니라 日常自省을 게을리하지말것이다

日英合作說
선데타임스紙論評

【倫敦二日發同盟】基榮事件解決을 契機로하야 英國國內의 輿論의 趨勢는 漸次日本에對하야 好轉하여오든바 以上雰圍氣를 反映하야 中國에關하야 日英兩國政府가 接近을 企圖한다는 報道가 頻繁히 流布하게되엿는데 UP倫敦支局主特派員은 「極東示一望」을 報道한것을 爲始하야 산데이·타임스의 外交記者는 二日紙上에서 吉田大使가 日本總選擧後 英國政府와 「極東에잇서서의 日英兩國의 合作」에對하야 交涉을 開始할것이라고 述하고 試案의 要領으로서 左와如히 報道하엿다
一、日本政府는 中國의 領土完整을 尊重함
一、英國政府는 北中國에잇서 日本의 經濟的利益이 重要한所以를 承認함 但滿洲國의 正式承認을 必要條件으로하지안흠
一、日英米佛四國政府는 中國에 對하야 借款을 附與함
一、日英兩國은 友好條約을 締結함
英國의 日本에對한 國家的好感은 華盛頓會議以前과가튼 緊密한 明朗關係에 由來한것인데 日本政府로서는 舊盟邦과의 友好關係促進을 希望하지안는터는아니나 吉田大使가 카도간外務次官과의 交涉을 開始하엿다던가 試案四個條를 用意하고잇다던가하는 報道에 對하야는 外交界의 消息側은 新聞人의 創作에 不過하다고 一笑에 附하고잇다 特히 中國의 領土完整에 關하야는 九個國條約第一條에 嚴然히 明文이잇서서 只今다시 日英兩國間에 새로協定을 締結할 理由는업고 더욱 中國과의 友好條約에 對하야 英國과 協定을 締結하려고 한다는것은 國家의 體面上으로보더라도 首肯할수업다고 解釋된다고한다 客觀的情勢가 漸次好轉하야 日英兩國間에 中國問題에 對하야 具體的成果가 自然發生的으로 成就될 境遇에는 日本政府乃至日本大使館으로서 無理하게 日英兩國關係를 助長할라는 意向은 全然업다고한다 諸般新聞의 「日英兩國의 接近說」에 對하야 「日英兩國關係를 改善하고저하는 全般的希望이 相互間에 움지기고잇스나 特定會談은 아직 全然 說明하지안는다」고 否定하엿다

道會議員의 選擧 六日後로迫到
立候補者의 屆出三日로完了
總數八百三十六名

道會議員의 選擧日도 六日後로 切迫하야 立候補者의 屆出도 三日까지로 마금되엿는데 三日正午現在로보면 定員一百八十三名에 對하야 立候補八百三十六名으로 約三倍에 達하엿다 이것을 前回選擧時의 立候補者 九百九十九名에 比하면 六十內外의 減少를 보이고잇다 또今般現議員으로 再出馬한것은 百三十二名이고 그餘는 新人(그中에는 元議員도잇슴)으로 著做되고잇다 戰況은 府邑보다 郡部가 激甚한中 咸南은 定員二十名에 八十名의 立候補라는 四倍의 激戰이고 다음에 江原、黃海、京畿、忠南等 모두 三倍以上의 大混戰이다 府、邑、郡、島別과 道別로보면 다음과갓다

	定員	立候補者數 朝鮮人	計
府	二五	一七	四八
邑	一三	二一	三四
郡	一四三	七一九	七五〇
島	二	三	四
計	一八三	七六〇	八三六

	定員	計	朝鮮人
京畿	一八	八六	(七七)
忠北	一四	三八	(三一)
忠南	一七	五四	(五〇)
全南	一九	六七	(五七)
全北	一〇	五[illegible]	(四九)
慶北	二〇	七六	([illegible])
慶南	一九	七二	(六三)
黃海	一〇	七五	(六七)
平南	一八	五五	(五二)
平北	一三	六六	(六五)
江原	一二	七二	(七〇)
咸南	二〇	八〇	(七四)
咸北	一四	四二	(三八)

001037

文房具事務用品 和洋帳簿卸 東光堂文具卸部 京城府寬勳洞四番 電光(3)三七〇番 文具目錄 要三錢切手

ハドンバックツ 製造元 夏屋 京城本町二丁目 電話本局七四九番

法人登記公告 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

法人登記公告 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

法人登記公告 公州地方法院洪城支廳

힘안들게아기낫는약 安產湯 家傳秘藥 特價一圓 效力證明 責任發賣 振替京城一七五番 電話三三〇番 天省堂製藥社 特約店歡迎 京義線沙里院

中津式 アイスケーキ機 京城元町一丁目電停前 中津式冷凍機第二販賣事務所

朝報案內

唐版 醫書新荷着 目錄進呈 京城府禮智町八八ノ一 杏林公司

女子 二十歲以上三十歲까지 高女卒業程度 朝鮮人通勤店員數名至急採用 詳細는 本人과面談 本町四丁目三十四番地 八千代商會營業所

就職 自動車運轉士就職案內 (官許)京城府武橋町二 東洋運轉手紹介所

讓坐 嘉化町七四의一九 九坪詳細電本一八六四 勸農町三七番地로問議

採用 醬油販賣經驗잇는健實한人二名採用 給料定給十圓以上外步合有 年齡二十以上 要自筆履歷書 送付 市內保證人二人 會日通知 市內積善町一八八 金成才

賣地 千坪 水仁道路近 果樹園 立木 十七八年生 桃 砂果 梨 萬餘坪 住宅地 九千 參 砂礫 有志者에게 永龍 金

恩給 五年分以上特別 立替 舊債引受 又立替 京城 府林町 八八(孝經橋南側) 朴商會

採用 本社社務擴張에 따라 社員若干名을 採用함 一、資格은 中學以上程度 自筆履歷書持參 來談(但 電話相談은 謝絕함) 株式會社 中央時報社 電話(本)五三二四番 京城府林町八二番地

帝國特許 ガソリンランプ フンランリソガ許特 特約店募集 カタログ進呈 新發賣 十六燭光 名古屋市中區古渡町四 合名會社 柴田商店 電話南二一三三番 振替名古屋二三二一番

商報進呈 (但シ營業品目入 店名判ナキモノハ送附セズ) 名古屋市西區堀詰町三丁目 合名會社 ザ 辻定商店 電話西局四六六八番 振替名古屋一五一五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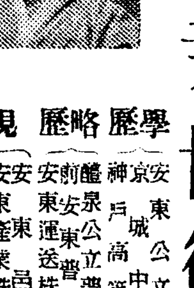
フラノ三ツ揃 (シルバー總裏付) 一組金六圓ヨリ 各種アリ (外ニ純毛品モ有リ) 既製ラシヤ洋服製造 諸官省拂下被服 一切問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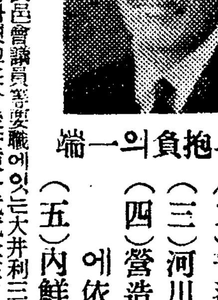
商報進呈 メリヤス ハクト印 名古屋南大津町 田組與商店 電話中一〇七二番 振替名古屋七七番

著名問屋 高級 ノルマン萬年筆 特殊合金ペン付 고級エボナイト軸 新製品 連鎖店募集 本舖 三京商會 名古屋市東區石町角 電話東二六七九番 振替名古屋二一三七番

幸福 健康の鍵 高壓保健釜 玄米、白米 榮養料理 おいしく早くやわらかく カタログ進呈 日本合金製作所 名古屋市中區御器所町向田三八 電話南局四三五一番 振替名古屋二〇九七一番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本店 東京 日本勸業銀行構內 相場落つき 眞の買時か 割引勸業債券も良ければ復興債券も有利格安投資に可 公債高價買入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十八番地 振替京城二九七・電話本局四·五四

慶北道會議員 立候補 尹世衡君

學歷 安東公立普通學校 京城中東學校 神戶高等商業學校
略歷 醴泉公立普通學校訓導 安東普光學校教員 安東運送株式會社長
現在 安東產業株式會社長 慶北釀造株式會社取締役 安東株式會社專務取締役 安東酒造株式會社取締役 安東各文化事業團體要職
慶北의榮譽、安東의 明朗을爲하야 政治家로나 事業家로나 人格者로나 壯大한抱負를가진 新進氣銳尹世衡君의게 貴重한 投票를 거듭거듭 바라나이다
慶北安東選區 推薦員一同 有權者有志一同 白
有權者 各位 貴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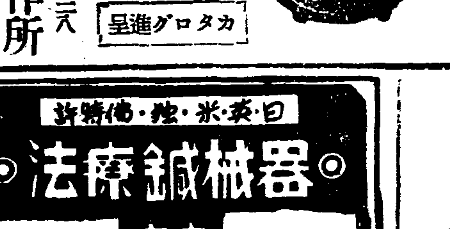
慶北道會議員立候補 大井利三郞君

氏의 抱負의 一端
(一)道路의 開拓 (二)普通學校의 增級 (三)河川의 整理改修 (四)營造物等의 設置 에 依한 經濟更生 (五)內鮮一如
現在安東商工會長及邑會議員等要職에 잇는 大井利三郞氏는 過去三十年間 安東을 爲하야 盡力하엿고 또今後安東을 代代永住之地로 定하야 公明正大한 主張을 實現함으로써 餘生을 바칠야하는 高潔한 人格의 所有者입니다 吾人은 氏를 慶北道會議員立候補中 最適任者로 認하야 玆에 推薦하나이다
慶北安東推薦員一同 白
有權者 各位 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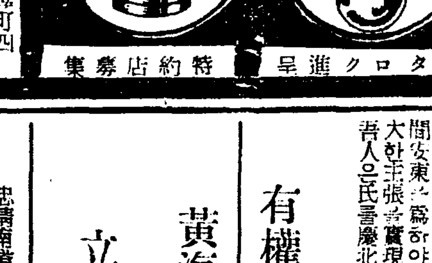
黃海道會議員 立候補 李錫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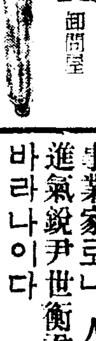
忠淸南道會議員立候補者 任熙準
右君은 郡內에서 屈指의 實業家이옵기에 最適任者로 認하고 今般道議員改選에 際하야 立候補者로 推薦하오니 有權者諸賢은 淸高한 一票를 君에게 投하심을 切望하나이다
昭和拾貳年五月 日
保寧郡推薦者一同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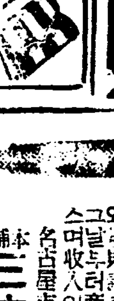
有權者諸位의 深厚하신 同情으로 本人等이 當選의 榮을 蒙하야 玆以紙上으로 感謝의 意를 謹表하나이다
長水面協議員 李韻變 柳日秀

日·英·米·佛·獨·特許 器械鍼療法 奧村療法 朝鮮學院 ◎實地講習科 ◎通信講習科 ◎速成講習科 學則開業文獻送呈(郵券四錢要) 每月五日開講 ◇特典=修了者全國無試驗開業ヲ得 本院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三丁目 所在地 京城府大和町三丁目









白白教의 "殺人行狀" 取調딸어漸擴大

記憶업는그들의殘虐한犯行

無緣塚으로사라지는怨魂들

전률할 잔학을 마음대로한 백백교의 죄상은 취조본부인 동대문서의 취조가 진행됨을 따라 점점그내용이 확대되여 가고잇다—동서에서는 지난십삼일 이사건의 보도를 일부해금하는동시에 취조방침을 달리하야 암장한 시체발굴을 일시중지하고 방증(傍證)을 굿게하기위하야 위선 비교적 순순히진술하는 녀교도들을 취조하야왓스며 사일에는 교주전룡해의 애첩으로 현재하왕십리정구백오십구번지 동교간부 류인호(柳寅浩)의집에 도라가잇는 그의딸 정전(貞全)(二三)이를불러다가 악마생전의 소행 동정등을 상세히 취조한바잇섯스며 한편 관계각도경찰서에의뢰하야 구교도를 일망타진으로검거하고잇는데 그들가운데서이교의 흉악한내막을 잘아는자는모두 동서로옴겨다가 취조할방침으로 지난 이십오일에는 평북강계서(江界署)로부터 리창후(李昌厚)(二七) 형제를 압송하야온것을 비롯하야 그수가벌서 오륙명에달한다 이와가리취조범위를 점차확대하는일방 간부들사이에도 처음에는 도무지입을 벌리지안튼자도 모든것을단념하엿는지 차차로 입을벌리기시작하야 비상한곤란을 예상케하든취조도 요사이는 비교적순조로 진행되는형편이다 여기에따라판명된 피해자의수도 해금당시보다는 약백명에 갓가운수를 증가하고잇는데 이사건전체를통하야 무엇보다도 곤란한것은 범행전부가 엄중한비밀리에 감행되엿슬뿐아니라 기록가튼것은물론 전혀업서 간신히관계간부들의 기억에 조차안남은수밧게업는관계상 판명되는 피해자수에비하야 신원판명되는것이 극히적은것으로 그일흠조차 세상에알려지지안코 영원한 무연총(無緣塚)으로 사라저버릴 피해자가대부분이라는것이다

平壤驛附近서 機關車故障

第五列車遲滯

사일오전두시 십삼분부산을떠나 봉천으로가든 제오렬차가 평양(平壤)역과 서평양(西平壤)역사이를 진행하든중 기관차의 발회가 부서저서 압흐로 운전을하야 갈수업게 되엿슴으로 평양역으로부터 구원기관차를보내여 밧구어달아서 두시간구분간늣게 목적지에 도착하엿다 이때문에 이렬차에 전후한 각렬차는 약한시간씩늣게 발차하엿다한다

小鹿島丸沈沒

【光州支局發電】 전라남도 소록도(小鹿島)갱생원(更生園)소속 소록도환(小鹿島丸)(四九)은 십일오전팔시경 보리이천포를 싯고 군산으로향하야 항행하든중에 무안군시도면방축리(務安郡道西面防築里) 후서도부근에서 농무로 인하야 좌초침몰하엿다 선장외여섯명의 승조원은 무사 피난하엿스나 손해는 선체만이 만오천원이다 그급보를듯고 목포로부터경비선이 삼일오전열시에 출동하야 구호중이다

京忠뻐쓰 二重珍事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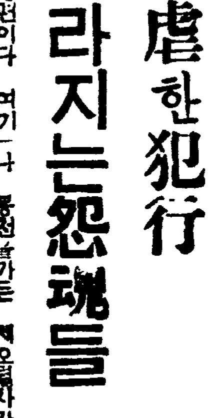
길에서아이치우고 담배불에車體半燒

乘客은多幸免禍

사일오전열한시 경성을떠나 양평(楊平)으로 향하든 경충자동차회사(京忠)소유 경제사천일백칠십호 『뻐스』(운전수 崔稀錫)(二七)가 손님 아홉명을 태우고 부내 향당정(香塘町) 금택상점(金澤商店) 압흘 지날때 동정 백구십칠번지 조춘선(趙春善)(二)의 넷재아들 용은(龍銀)(七)이를 치여서 이마 다리등에 부상을입혓슴으로 곳 리보통학교압병원까지 도라와 운전수는 그아이를업고 병원으로 드러간동안에 승객의 담배불이 『까소린·탕크』에 떠러저 화재를 이르켯다 불길은 순식간에 차체전부에 퍼젓스나 달려온소방대의손에 간신히 진화되엿다 승객들은 곳밧그로뛰여나와 다행히 무사하엿스나 대낮에 큰거리에서 이러난 괴화를보려는 군중으로 현장은 일시 대혼잡을이루엇스며 소관 동대문서에서는 전기운전수와차장을 엄중취조중이다 그리고손해는 약삼백원이다(사진은 내부 불태운뻐스)

世事 施療病室建築에 金二萬圓再義捐

市內實業家方奎煥氏의快擧



시내 남대문통 세부란스병원에서는 변대로 빈한한 환자를 위하야 시료사업을 계속하야 수한 환자를수용하야왓스나 일층더 봉사의 최선을 다하기위하야 현재시설규모를 확장하려고하는동시 시내실업가 방규환(方奎煥)씨가 이소문을듯고 자진하야 시료병실 건축비로 일만원을 출연하엿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후 병원당국자는 이에용기를어더 즉시 시료병실건축에 착수하엿든바 뜻밧게 그공사비가 삼사만원을 요하게되엿스므로 이비용을 방법에 고심하는 남어지 공사가 소기한바와가리 진척되지못하고잇다는 소문을 들은방씨는 다시이번에 이만원을 병원당국에 기증하야 어데까지나 시료사업의 완성을 위하야 적성을 애끼지안는 태도를보엿다한다 그래서 동병원측에서는 이쾌거에크게감격하야 마지안는다는데 방씨로말하면 일즉이 동성상업학교의전신(前身)인 대동상업학교를 설립하엿고 현재 경성원예학교(京城園藝學校)를 경영하고잇서서 교육계에 공로 남흔유지이다(사진은 방규환씨)

宮城縣에大火(仙

일부시경에 겨우진화하얏다 주요한소실건물은 경찰서, 우편국, 소학교등으로 원인손해는 방금조사중이다

思想犯保護觀察審査 一時에는不可能

예산부족、사회적시설불비로 法務當局도漸進主義

조선사상범보호관찰소(朝鮮思想犯保護觀察所)는 개설이래 여러가지로 보호관찰을 요하는사상범을 대개조사한결과 예상이상으로 그수효가만흐나 예산과시설기관의 부족관계로 최초에 예정대로 심사결정할수가 당분간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엇다 그내용의 대개를드건대 예산이최초요구하얏든바와는 태반이부족할뿐아니라 위탁보호할만한 사회시설기관이 부족하야 도저히 조사되는사상범의 십분지일도 심사결정할수가업시되엿다 이에대하야 총독부법무당국자의말을 드르면 예산과사회시설기관도부족할뿐아니라 관찰소가 개설초임으로 예정대로리상적진행을 물론곤난한터이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도리밧게 업다 그리하야 시일을 끄으는동안에이미 조사한 보호관찰을 요하는사람이 철저히 사상을전향하얏스면 단연 보호관찰망에서 제외할수도 잇는것이며 또리상적으로나아갈수도잇슬것이다운운

美展作品搬入開始

午前中에一四一點

오는 십륙일부터 개최되는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展)출품작품반입(搬入)은 사일오전구시부터 개시하얏는데 정오경까지 반입된것은 제일부 동양화가 십삼점、제이부 서양화가 일백점을 돌파하얏고 제삼부·조긔기타가 이십팔점으로 서양화가 단연 우세를가지고잇는바 이것은 작품 준비관계로 서양화가 반입 제일일에 우세를 점령하게된것이지도 모른다고 총독부학무당국자는 말한다(사진은 반입광경)

『노름꾼에게방을 빌려주면罪가된다!』

【梁正煥에對한上告審에棄却判決】

高等法院의新判例

형법제 일백팔십륙조(刑法第一八六條) 제이항의 도장개장죄(賭場開帳罪)는 리익을 목적으로 도박할장소를 제공하는 주재자(主宰者)가되야 도박을할장소를 열어줌으로써 성립되는것으로 이외에 실지로리익을 수득하고 또도박꾼에대하야 지배적 리장에 잇슴을 필요로하지안는다는 고등법원 형사부의 신판례—부내동사헌정(東四軒町)사십팔번지 량산업 량정환(梁正煥)은 작년이월이십오일 삼월구일 이틀동안에 그의친구로지금도주중인 리계석(李啓錫)이가 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정을알면서 그의청을바더 그의집방한간을 제공한외에 그해사월십일에 가튼피고 리명복(李命福) 김룡화(金龍華)등과함께 돈의정(敦義町) 김동주(金東周)의집에서 돈을걸고 화토를한혐의로 도박밋도장개장방조(賭場開帳幇助)죄에걸리여 일이심에서 징역팔월 벌금백원(일심에서삼백원)판결을밧고 작년십이월에 고등법원에불복상고하야 어래 그법정에서심리중이든바 그법원에서는 지난삼십일에 피고는 도박을하야 돈을 다시 찻도록 하기위하야 빌려준것이지 리계석에게 빌려준것이 아니고 또 실상계석은 도박도 하지 안코 다만 개평을 뜨덧슬뿐으로서 그가 도장개장죄에 걸림을 하지안하엿다 그리고 리계석은 지금 도주중으로 그가 도장개장죄에 걸릴지 어떨지 알지도못하는 처지에 그에게 방을 빌려주엇다하야 피고를 개장방조죄로 론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박개장죄는 반듯이 박도(博徒)를 모호며 그들에게서 개평 즉 『데라센』을 바더야 성립되는것이 아니라 리익을 목적으로하야 도박할장소를 꾸며 제공하는것만으로서 성립하는것으로 정을알고 방을 빌려주엇스즉 개장방조죄로 론하여도 하등 위법이 아니라하야 그에게 상고기각판결을 내리는동시에 전기와 가튼 신판례를 지엇다

鐵道自殺한 구두장사

삼일 오전일곱시 이십오분에 성진(城津)을 떠나청진(淸津)으로 가든제오백십칠렬차가 성진 농성(農城)사이의 『턴넬』을 진행하든중 기차에깔려죽은 시체한개를 발견하엿는데 그는성진본정(本町)에서 구두장사를하는 중강미장(中岡米藏)(三三)으로 판명되엿다 염세자살인듯하다한다

籠球界의盛事 聯盟戰對陣

六日鍾路基靑後庭서

本社後援

朝鮮籠球協會主催와 本社後援의第七回中等校及俱樂部聯盟戰은 來六日午後四時부터 鍾路中央基靑後庭코-트에서開幕할터인데 日曜日을除外한十五日까지의 九日間을繼續擧行하기로되엿다 東洋第一을자랑하든 早大를餘地업시물리친 朝鮮籠球界는 例年에比하야 자못活氣를띄우고잇는데 이聯盟戰을通하야 一層向上發展될것을豫期하고잇다 이에參加한十五團中에 中等部는例年보다實力이低下한感이업지안흐나 中東이斷然頭角을나타내이고잇스며 우리學園球界의雙璧 延專과普專의 피끌는爭霸戰이야말로 벌서부터 滿天下팬의興趣를끌고잇다 同聯盟戰의 日程表는 다음과갓다

中等校俱樂部籠球聯盟戰對陣表

日字＼時間	四·○○—四·四五	四·五○…五·三五	五·四○…六·二五	六·三○…七·一五
6(木)	入場式	養正…靑學	大東…普成	普專…高麗
7(金)	漢商…徽新	徽文…培材	中央…協贇	OB…延專
8(土)	養正…中東	漢商…大東	靑學…徽文	高麗…延專
10(月)	徽新…普成	培材…中東	大東…中央	OB…高麗
11(火)	普成…協贇	養正…徽文	徽新…大東	大東…協贇
12(水)	漢商…普成	靑學…培材	徽新…中央	
13(木)	漢商…中央	培材…養正	OB…普專	
14(金)	徽新…協贇	徽文…中東	普成…中央	
15(土)	漢商…協贇	靑學…中東	普專…延專	優勝盃授與

上海遠征中의 早大蹴球戰績

【上海二日發電】 上海遠征中의 早大蹴球軍은 지난一日에 當地逸仙園球場에서上海選拔軍과 對戰한바 前半은二對一로 早大리-드하엿다가 後半에드러가 上海軍一點을 挽回하야 結局二對二의 無勝負로마치엇는데 이에出場한 金容植君은 前日의對英國駐屯軍戰에 負傷을 당하엿스나 敢然히登場하야 奮鬪하엿다 이리하야 早大는 三勝一無勝負一敗의 戰績을남기고 二日朝 歸途에올릿다

軟式野球第三日戰績

京城軟式野球大會第三日 第二回戰은 二日午前十時부터 元町遞信局球場에서 繼續擧行한바各戰績은 다음과갓다

總府	0011000	4…2
貯銀	0040000	
火保	2200001	11…5
窯業	2101520	
行政	0220000	6…4
專賣	1100031	
京電	0000000	3…0
遞和	2010000	

簡易保險對窯業俱樂部戰은 窯業側이棄權하야 簡保軍不戰一勝하엿다

少年庭球大會

朝新主催의 第十二回全鮮少年庭球選手權大會는 來十六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擧行할터인데 諸般規定은 다음과갓다

▲選手資格=同大會當日까지 滿十五歲未滿者(大正十一年五月十六日以後 出生者) 男子로서 學籍을 가진者
▲申請用紙=往復葉書(但一枚에 一組式記入할事、返信面을 參加證으로함)로 當該校責任者가 申請할것
▲申請期日=五月十二日限
▲抽籤組編成日=五月十三日午後四時主催側
▲試合方法=투나멘트式에依함
▲使用球=赤星球

廣告

神秘의內容

青春의泉

本劑는理想的强精劑로서 望되는八九十老翁이라도靑春의氣分을不失하며性慾이潑剌하야 神奇한秘効는感嘆케됩니다 寶是此秘劑난一時的이絶對안이고元力을增發케하난更少年藥

京城府長谷川町五○ 製造本舖 朝鮮製藥合資會社 電話本局一、三○九番

올림픽을 압두고

宣傳—設備—輸送

鐵道局萬般準備

觀光루-트設置運賃制特定

選手에게는五割引

삼년뒤에 동경(東京)에서 열릴 올림픽을 압두고 조선철도국에서는 선전(宣傳)설비(設備)수송(輸送)등에 만전을 도모하고 잇는터인데 그중요한계획의 내용을드르면 ▲관광(觀光)루-트를 설치하야 특정 운임제(特定運賃制)를 적용하며 ▲특별렬차를 운전하고 ▲조선 만주(滿洲)북중(北中)에 직통렬차를 운전할것 등인데 특별히 선수에 대해서는 차삯을 만주철도의 방침과가치로 오할인을하며 외국관광객에 대해서도 상당한할인을 할 의향이라한다

二萬圓携走犯 柳貞鎬에二年役

京城地方法院의斷罪

지난삼월이십구일 대판(大阪)본사로 보내는 현금이만원을 횡령하여가지고 만주 『할빈』으로 도망하야 로서아사람경영의 『아파-트』에 잠복하여잇다가 사월말경 추적하여간 경성본정(本町)경찰서원에게 체포된 부내 이등충상사회사(伊藤忠商事會社)남대문통지점원 부내제기정(祭基町)일백사십칠번지 류정호(柳貞鎬)(二七)에관한업무횡령(業務橫領)피고사건과 밋 그와함께 만주로 도망한 그의족하 류명복(柳命福)(二四)에 관한 장물수수(贓物收受)피고사건의 언도공판은 삼일경성지방법원 제삼호법정에서 고목(高木)판사심리 강(姜)검사관여로 열렷는데 재판장은 검사의구형대로 다음과가튼 판결을내리엇다 ▲柳貞鎬懲役二年 ▲柳命福同一年

능청마진竊賊

부외 숭인면미아리(崇仁面彌阿里)산일백사십칠번지 리선명(李善明)(二七)은 삼일새벽네시쯤되여 바로 이웃집인 고천정의(古川政義)(四五)의 양계사로부터 닭설흔여덜마리를 훔처다가 자기집닭장에 너허가지고 시침을떼고 그날오후세시경에 동대문시장(東大門市場)안에잇는 닭장사 신용악(申容岳)에게 팔고잇다가 동대문서원에게 발각체포되엿다

安全辨도적놈

부내 제기정(祭基町)사십오번지에사는 리두영(李斗榮)이는 지난사월십일부터 오월일일까지사이에 남대문통(南大門通)상공장려관(商工獎勵館)에서 발명품전람회가 잇슬때마다 구경하는사람인척하고 관내를 도라다니며 『스텔-롱』에달린 안전변(安全辨)절은개를 훔쳐서 고물상에 팔려고하다가 삼일본정서에 체포되엿다한다

꾸지람듯고 出家한少女

이일오후여섯시십분쯤 경기도고양군능곡(高陽郡陵谷)여천에사는 리금례(李今禮)(一三)가 자기집에서 어린아이를 보고잇다가 어머니의 꾸지람을 듯고집을 나갓는데 룡산방면으로온 형적이 잇다고 차저달라는 수사원이 부내각서에왓다

天氣豫報

槪況 高氣壓은 東支那海에잇서 徐徐히東쪽으로移動하고 低氣壓은滿洲中部에잇서 점점北東으로進行하고잇다 또樺太附近에도 低氣壓이잇다 北滿洲는흐리고南滿洲는개이며 朝鮮은北西部가흐리고 그밧게는 天氣가조타 日本內地는關東以西가개이고其他는大槪흐리고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와明日은南西風이불며흐리것다 京畿全道도갓다

昨日最高 十九度一
同最低 八度六
今朝最低 七度九
今日正午 十九度三

特報 今日午前九時京城測候所發表 京畿道全道南西風이强하며 海上에는風浪이甚하다

뻔뻔한窃盜團 公園에서饗宴

少年窃盜四名捕縛

사일새벽네시쯤 룡산경찰서에서는 부내효창원(孝昌園)에잇는 토막에서 주류(酒類)과자류를 먹고잇는 소년절도단을 체포하엿는데 그들은 원적을 경기도안성군일죽면죽산리(安城郡一竹面竹山里)에두고 주소부정의김석준(金石俊)(一八)을 단장으로하야 룸펜소년 김기안(金基安)정막동(鄭莫同)과 아현정(阿峴町)삼일번지에사는 오룡식(吳龍植)의 네사람인데 이들은 지난일월 이십삼일 죽첨정 일백칠십사번지 시가삼십원어치절취한것을 비롯하야 죽첨정(竹添町)랭천정(冷泉町)금정(錦町)대도정(大島町)삼판통(三坂通)등지에잇는 일본내지인집을 가리지안코 십삼처나도라다니며 술 금시게 크놉시게 보석반지 현금등만을 절취하여다가 각처고물상등에 파려가지고 토막에드러와서 절취한술을 마시고 몸의향락을 멋대로하고 놀나가 체포된 것이라는데 또여죄도 만흔모양이라한다

農林局長官舍 飼犬盜難

삼일 오전두시쯤에 시내서소문정(西小門町)오십칠번지 시오도(矢島)농림국장의 관사내에 어떤괴한이 드러와서 시가 약삼백원가량되는 개한마리를 도적하야 가지고 사라젓다고 한다 그리하야 곳 시내각서에 수배하여서 범인을 엄탐중이라고한다

화류병근치법

화류병은 그종류가만타 제일무서운것은 매독이다 일면에사망자가수만명이오 한번걸리면 칠팔대까지 대대손손유전하야가며 뼈를갈거먹고 이(齒)까지 갈거먹는 무서운병이니 살가튼것이야다시말할것도업시 퍽퍽썩는다 이가빠지고 코가떠러진례는 부지기수다 또 당창병이라고 코소리만 하여도 겨레도오지안을라고 도망가는 누구나실허하는병이다 걸리기만하면 남녀간에 국부가헐고 눈이희미하고 머리가빠지고 팔다리가쑤시고 얼골에나전신에 종기가툭툭터지고 여드름이만히나고 목이쟁기고 전신이 기운이업고 양기도 업서지고심하면 움직일수도업다 또 이러타는증세가현저하게나타나지안는다도 열이면 열대개 매독균이잠복하여잇슴으로 언제발작할는지모르니 예방(豫防)할필요가잇다

그런대 이런무서운 매독에 당장에 곳속효를볼수잇는 참신기한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약을 신발명하엿다한다 즉 그약명은『푸로다』라는대전세계에서 제일가장힘센 최대강력제라한다 지금전세계에서 망신, 망국병인 매독을 업새나고 근본적으로 철저하게씨를말리나고 다년고심연구한결과 대신발명하엿다한다。『푸로다』를경성서대문네거리『신기신성당』에서 일반에게 노나준다는대 그중『십오원』분으로 천이면천, 만이면만, 수십년된 고질악질노조타는것은다하여 백방으로 치료하여보앗서도 안나어 고통하든것도 당장에 제각제각떠러진다한다 그리하야 감사장이 산떼미가티 싸엿다한다 그럼으로 이무서운 매독을 자기는몰론이오자손까지위하여서라도 속히 근치하여야되겟다 지금곳당장에 시험해야하겟다 또만일에 무효면 두말업시 무슨책임이든지 진다한다 약가는 다음과갓다(십오원분을한번에 두제주문하시면특별히 세제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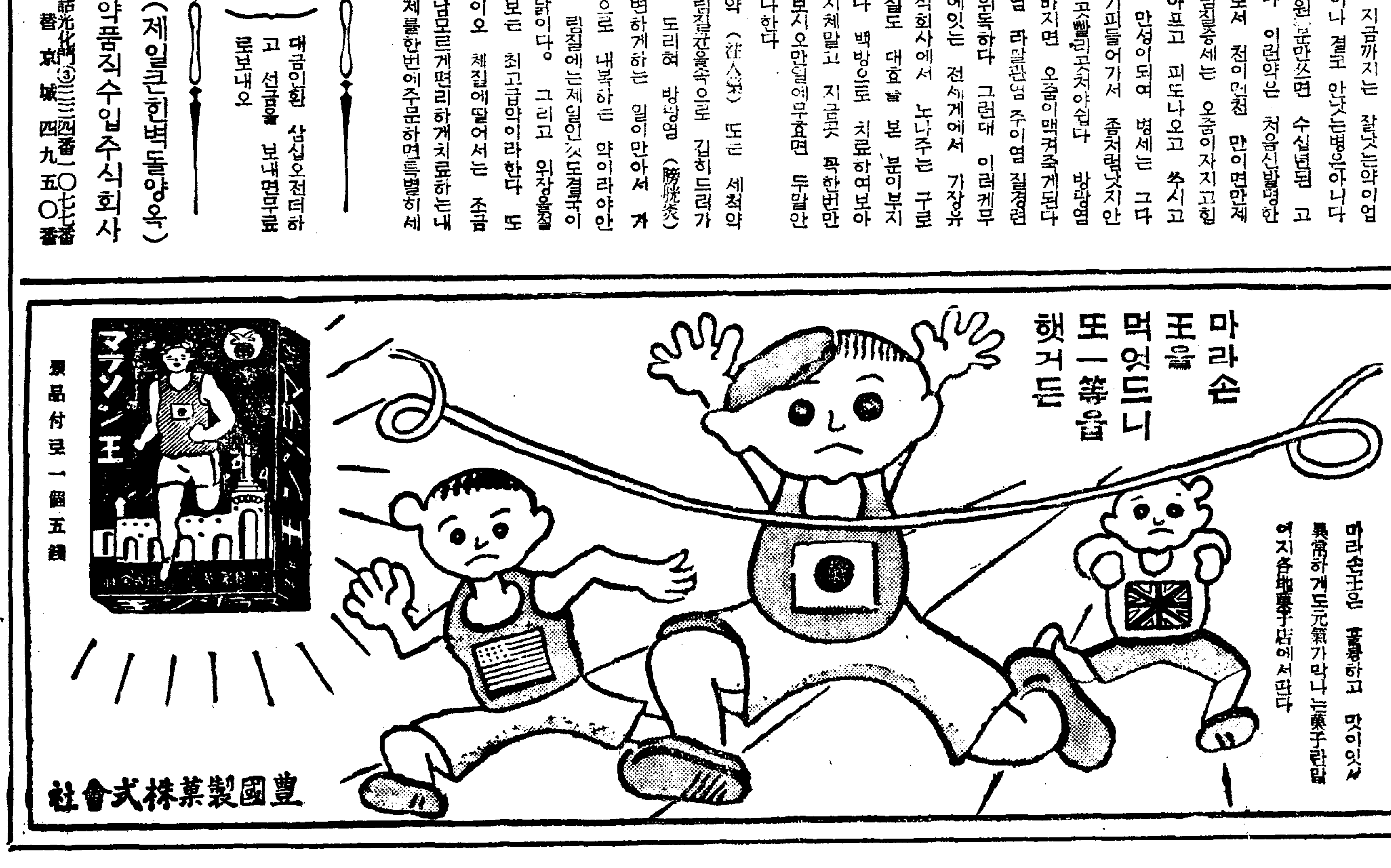
【가약】
병이심하면 십오원
병이완만하면 십원
병이시작이면 칠원
시험용은 오원
대금인환은 송료가삼십오전이오 선금이면무료다

또 남녀임질과 부인대하증 부인냉병도화류병중에는 잘낫지안는고질병이오 무서운 병이다 즉각잘못하면 눈이멀어 봉사가되고 자식도못낫코 일평생을 울며지낸다 한번걸니면 추하기짝이업고 종신병이라고까지 지독한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낫는약이업섯슴으로 그런말도 괴찬한말이나 결코 안낫는병은아니다 최근에 신발명한 약인대『이십원』분만쓰면 수십년된 고질이라도 쉽게깨끗하게된다한다 이런약은 처음신발명한 가장힘센강력제(最大强力劑)로서 천이면천 만이면만 제거제떠러진다는약이라한다 림질증세는 오줌이자지고힘을고질안나오고고통이나오고 아프고 피도나오고 쑤시고 앏이고 그러다가 몃칠지내면 만성이되여 병세는 그다지심하지안코나 병균이 점점기피들어가서 좀처럼낫지안는다 그러니 한시가급하니 곳빨리고처야쉽다 방광염 섭호선염등이되고 오줌길이조바지면 오줌이맥켜죽게된다 녀자도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염 라팔관염 주이염 질경련이되며 자궁암이되면 생명이위독하다 그런대 이런케무서운 병도 경성서대문네거리에잇는 전세계에서 가장유명한 신기신성당약품직수입주식회사에서 노나주는 구로벨은 참신기하야 수십년된 고질도 대효를 본 분이부지기수고 감사장이 매일답지한다 백방으로 치료하여보아도 아니나어 고통하는분은 지체말고 지금곳 곽한번만 구로벨(이십원분)한제만써보시오만일에무효면 두말안하고 엇더한 책임이라도 진다한다

그런데 림질을외치로 주입약(注入藥) 또는 세척약(洗滌藥)을 쓰는일이잇스나 림질균을속으로 깁히드러가게함으로 병이낫기는고사하고 도리혀 방광염(膀胱炎) 산충(睾丸炎)등 악성으로 변하게하는 일이만아서 가장위험한 치료법이다。그럼으로 내복하는 약이라야안전하고속효가잇나니『구로벨』이 림질에는제일인것도결국이러한 결점을 완전히업게한까닭이다。그리고 위장을절대로안상하고 일주일에 효를보는 최고급약이라한다 또 주사도마질때뿐이오 곳 그태이오 체질에딸어서는 조금도 효과가업다결국간단하게 남모르게편리하게치료하는내복약이 제일이다(이십원분을두제를한번에주문하면특별히세제보내드립니다)

【가약】
병이심하면 이십원
병이보통이면 십오원
병이시작이면 구원
시험용은 오원
대금인환 삼십오전더하고 선금을 보내면무료로보내오

경성서대문네거리 (제일큰힌벽돌양옥)
신기신성당약품직수입주식회사
電話光化門③二四番 一○七七番 振替京城 四九五○番



中學講義錄讓る(本新)

全學期揃完全十二卷合本に日常百科大辭典添へ送料共只の二圓十錢で讓る 希望者至急葉書申込乞ふ 和歌山市新南町一の一 湯崎院岩崎生 有名な國民中學全科講義錄

男性强大 早漏防止器

此理想的物理治療器는年前歐米에서大好評을바든것으로서누구나한번使用해보면○的不滿이即座에서解決되는것입니다 一具金一圓五十錢 京城蓮池町七十七番地 歐米品輸入 三寶商會 振替京城一八八一四番

間食으로도 完全합니다

菓子商店에잇고五錢입니다

謝禮

去二日 全京城商工聯合會 大運動會 廣告意匠行列에서 一等當選의光榮을 엇삽기 玆에謝禮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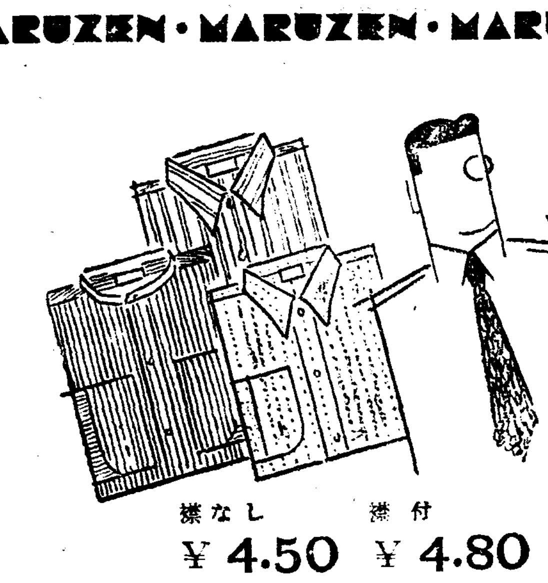
京城鍾路二丁目六七 高麗美術造花所 電光二三八六

謝禮

全京城商工聯合會大運動會廣告意匠行列에一等當選되얏삽기 玆에紙上으로謝禮하나이다

一等 天一藥房 京城鍾路 代表 電話光化門二三五○番

MARUZEN · MARUZEN · MARUZEN · MARUZEN · MARUZEN · MARUZEN · MARUZ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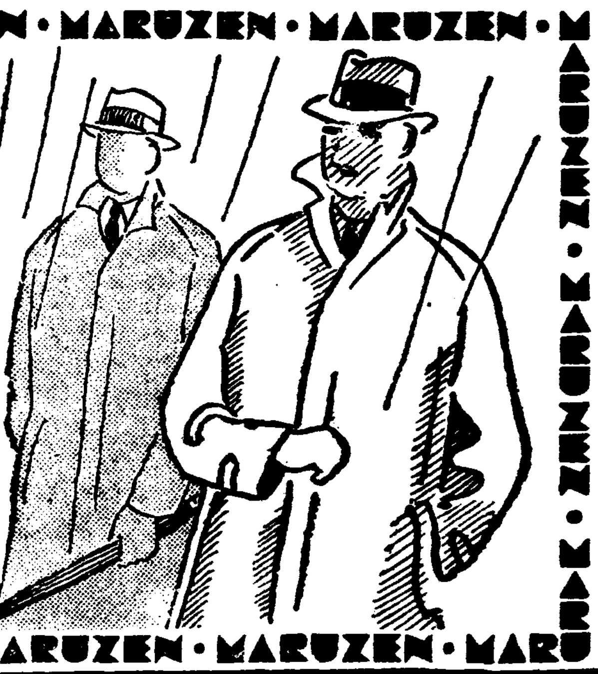


비단와이샤쓰
特價提供
봄으로부터 여름까지에 입으실것으로는 感觸이산듯한 純絹와이샤쓰를木綿製品과 別로다름업는 이低價로 提供。튼튼한가음으로서 雅趣가잇고 色調나 문의도 正히 지금씨一손의流行을具象化。

襟なし ¥4.50　襟付 ¥4.80

京城府本町二丁目
丸善
電話本局(2)四三六六番 長五九〇六番
振替口座京城三四四番

왜더ー오ー르코ー트
所謂 레인코-트갈라를 버서난뽀뿌린風의얇구도 가벼운가음은 몸에입어서 輕快 그러고 高尙 또理想的通氣防水加工。
¥ 22.50



MARUZEN · MARUZEN · MARUZEN · MARUZEN · MARUZEN · MARUZEN · MARUZEN

味の素(아지노모도) 中罐
애용가우대 300,000個限

大特賣
景品附

買上即席에서
파ー쿠로無漏進呈
罐中의抽籤番號券으론
勸業債券을탑니다

抽籤하야 進呈하는 景品

壹等 金拾圓也勸業債券 一枚 ……三三〇本
貳等 一、お召 一反 一、特製ハンドバツク 一個 一、高級置時計 一個 (何レカ一品) ……六六〇本
參等 食卓容器入味の素 一個 ……一三、三二〇本

御注意 罐內에 드른抽籤番號券은昭和十二年六月上旬本紙上에 當籤番號發表될때까지保管하여주시오

味の素直系
寶製藥製
家庭常備
皮膚撒布劑
定價二十錢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朝光 五月號

巨彈 人氣의 絶頂! 大增刷! 飛躍號 一齊發賣中

故周時經氏後孫……一記者

朝鮮日報出版部發行 定價四十錢 振替京城八五八七

音樂行脚記 玄濟明

精神遺産의繼承
◎義와信에對하야……尹致昊
◎信仰과經驗으로……梁柱三
◎恕·忍·勤……曺晩植
★다만苦痛뿐……洪命憙
★特輯의辭……主幹

白樺……(表紙)
表紙畵……安夕影
×××★

五月의詩歌
無名의球根……春城
侏儒의노래……林和
봄은날개……趙靈出
心淵……馬鳴
月光曲……金光均

不日絶版

敎育設問…… 權相老·李榮俊·金末峯·韓雪野·李箕永·金海剛·金珖燮·張文卿·崔鉉培·李一·嚴興燮

유모어設問 李克魯 孫晋泰 柳致眞 朴鍾和 徐光霽 嚴興燮

日記設問 金海剛 韓雪野 李孝石 李榮俊 權相老 高裕燮 李一

歷代冤獄再審錄……車相瓚
舞踊演劇의裏面……黑眞珠
입센翁의戀愛……馳馬人

五月創作特輯
川邊風景(長篇小說)朴泰遠
길(長篇戲曲)金鎭壽
石榴나무집(長篇戲曲)李光來
개(短篇小說)李雲谷
楊서방(短篇小說)金沼葉
殺人事件(探偵小說)白羊兒

六號消息……B記者
海外消息……A記者
京城雜話……一記者

短篇小說 정분……故金裕貞
短篇小說 終生記……故李箱
長篇小說 未完成……朱耀燮

韓末外交舞台의珍聞
露都特使……尹致昊
日本參事官……李鼎來
佛國公使……閔泳讚
米國初代公使……朴定陽

金裕貞特輯
金裕貞君과나……李石薰
金裕貞을弔함……蔡萬植
가신金裕貞氏……毛允淑
金裕貞과의友誼……朴泰遠
金裕貞의情……姜鷺鄕
其他諸氏의哀悼文

故金裕貞君의藝術과그의人間秘密……金文輯

世界的偉大文家의感激의片紙集
故鄕어머님께……린컨
戰地에와서愛兒에게……끄란트
어머님께보내는글……스코트
사랑하는안해에게……워싱톤
畏友리스트에게……와그너
愛弟子에게……밀레
내愛孫에게……제파손
愛人죠세핀에게……나폴레온
★렌의哀歌를읽고……李善熙

五月의畵報
◇初夏風景
◇尹致昊氏令孃結婚
◇李商在氏令孫結婚
◇李萬珪氏令孃結婚
◇朝鮮美術院創設
……五月의映畵……
우리들의同志
沙漠의花園
瞬間幸福
平原兒

獨逸舊植民論……金贊龍
生産力擴充時代……李健赫
外聯並行本部事件……外紙飜譯 李榮敏

映畵界演劇界……各界
消息……編輯室
笑話……一山人
珍談·怪話……青巴里

趣味實益記事大滿載

朝鮮映畵監督素描……林蔚川
日常意識의悲劇……玄仁圭
東洋人과風流性……白鐵

會話邪戀이냐흔悲劇……站山居士

華麗燦爛한五月號

文人이본女性八態
演劇女優……柳致眞
女아나운서……李石薰
女流畵家……李軒求
女流飛行家……金珖燮
女車掌……徐光霽
映畵女優……朴基來
모던껄……安夕影
女醫師……鄭槿陽
아기자기한特種記事

野球生活十五年記

本誌는 滿天下讀者의 熱烈한歡迎을바더 天馬行空의勢로 號마다賣盡되오니 絶版前 速히注文하시오

최신식조영장치

입체파(立體派)의 그림이나무슨기계의 내부구조처럼 보입니다만은이것은 「독일」백림에 새로생긴 「독일도롱전선」회관안의칭계를 아래에서 치읍려 사진찍은것입니다 경도(?)는 용수철처럼된것이 칭계나간이고 한복판은 장치인데 이러케해서 집안이 낫처럼밝고 거룩안의 개석은 꼭간옥주리게되어잇습니다。

가정

한편짝으로만 눕히지말고 기저귀 얇게 챌일

미인이란반듯이천생만이아니니 기를때부터주의하자

얼굴이 이쁘고 미운것은 누구나 천생이 그런것이라고하야 더 다른 생각을 못하게됩니다。그야 물론 천생에 만흔 관계를가지지오만은 어려서 기르는 방법에 딸아서도 만흔 차이가 생기게됩니다。위선 눈매라든지 입매라든지는 퍽 깨끗한데도 옷을때 누런니가 들어나서 고만 추하게뵈는이도잇고 끼끗하고 수련하야 비교적 고상한편의 얼굴인데도 공연한 수태를지어서 고만 천하게뵈는이도 잇습니다。그러니까 본래의 얼굴은 또 더 고치지는못할망정 그 얼굴에 조화되도록 모든자태와 습관을 가꾸어주시는것이 부모의 한 의무입니다。

제일 니라는 것이 얼마나 얼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잇다는것은 녜로부터 방속가튼 니를 미인의 한 조건으로 치든 것으로 미루어도 알수잇습니다。니는 나종에 갈리라고 해서 처음 나서는 그다지 주의를 시키지 안타가 고만 니를 버리게 됩니다。니를 가는 것은 사람따라도 그러치처음낫든 그 니의관계로 이쁘고 미워지는 것입니다。즉 처음 낫든 그 니가 잘못되면 옥니도 되고 덧니도 되고 니ㅅ자리가 삐뚤삐뚤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또 어려서 니를 알른 애기들은 늘 얼굴을 찡그리고 턱을 한편으로 찡긋거리게 되지 안습니까? 그 [illegible]

나종까지 보기 실케 되는 일도 업지안치요。

×

나뿐버릇으로 인해서 얼굴을 버리는 예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그중에서 중요한것만도 아래와 갓습니다。

(一) 입으로 숨을 쉬는것
(二) 축농증(蓄膿症)이나 아데노이드
(三) 잠ㅅ버릇이 나뿐것
(四) 손으로 턱을괴는것
(五) 손까락을 깨물거나입살을 빠는것
(六) 혀를날늠거리는것
(七) 고무젓꼭지를 늘쪽쪽빠는것

그중에서 입으로 숨을 쉬는 버릇은 버릇뿐만 아니라 코나 목구멍의 병으로서 되는것인데 잇니가 빼드렁니가되고 빰의 형체가 나빠집니다。그러고 잠버릇이 나빠서 입을 버리고 자거나 업드려서 자면 얼굴의 형체가 보기실케 변동되야

幼稚園알범

東幕幼稚園

마포행전차의 종점을 한정거장 못미처가서 오른편으로 뚜렷진 길을따라나가면대흥정에 이르게 됩니다。

노-라케한물감을피여잇는 배추꼿밧사이를 지나서 오른편에놉다라케 소슨 언덕우를 올려갓습니다 동막유치원 뜰에는 늙은나무들이 까치집을이고서서잇섯습니다 서울안에서 까치집을보기는 정말이유치원압뜰에서 밧게보지못하얏습니다 크다란종을 나무우에 매다러노흔것도 보기조와왓습니다 동막유치원에 단이는여러분어린이들은 행복스러웟습니다 날마다 이조흔 뜰에서 뛰놀수잇는것이 부럽기도하얏습니다。

어린이는 모두 설흔명이잇스며 보모선생님은 한북해 박정숙두분이엿습니다。사진박히든날은 바람이어터케불엇슨지 고생스러웟습니다。

병든금붕어 치료하는법

먹이보다는 물이더중하다

『금붕어사료-금붕어요』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되엇습니다 벌서 여름인가하고 세월빠른것이 새삼스럽게느껴집니다。

유리그릇에 벌거코 하-얀 고흔그림자를 비추면서 헤염치는 금붕어는 여름의 상징(象徵)인데장마철에 드러서보나 지금이 기르기시작하기에 제일조흔철입니다。

금붕어를 기르는데는 연못에 가튼데 만히너어서 기르는 경우와 조그마한 그릇에 너허서 보는치로 기르는경우 이두가지겟는데 적은그릇에는 유리로맨든그릇 사기그릇이 잇습니다 사기그릇은 여프로도 금붕어가 헤염치는모양이 아름답게 보이며 사기그릇은 여프로는 못보고 위에서만볼수잇는대신에 바닥이하얀사기그릇는 금붕어빗갈을 한칭더곱게보이게합니다。그러나쇠로맨든그릇은 쇠기운이남으로 붕어에게는 대단히나쁩니다。

◇—◇

모든물고기를 기르는데잇서서 먹이 이상으로 중요한것은 물입니다。금붕어는 붕어와마찬가지로 보통때는보다는 무어이만히석기고 산소(酸素)가만흔냇물이 제일적당합니다 그러타고진흙물과가튼 탁한물이나 쇠스물은안됩니다。

적은그릇의물는 산소가 업서지는것을보충하기위해서 가끔가라주어야합니다。물이몹시더러운때 금붕어가쇠약한때 금붕어가코를처들고 자꾸우으로 올를때 이런때는 물을가십시요

금붕어가코를물박게내노코뻑뻑숨을쉬기는대개이른아침에만흔데이것은그릇물에산소가적어진탓이니까꼭물을 가라주십시요새물을가라주면 금방 밋바닥으로 내려가는것을 여러분도 보섯겟지요

가려주는물은 한여름에도 너무차서는안됩니다 우물물이라든지 새물가티 찬물이면 기려가지고서、하로、이틀두엇다가 가라주시는것이 조슴니다 시간은 오전중으로 물을가려줄때는 될수잇는대로 금붕어를놀라지안케조용히 적망으로맨든것으로 머리쪽부러떠서 너어줍니다손으로쥐면 금붕어가 약해집니다。

그다음、먹이로말하면 동물성(動物性)의것으로 장게비、어육(魚肉)、누에번디(蠶蛹)가튼것인데 번디는 지방이만아서 조금밧게 줄수업습니다。생선의살을기를끼와 짠맛이업는것이래야되며 식물성(植物性)의 먹이로는 보리、금붕어밥、국수가튼것입니다。먹이는 아침과나제 두번주고 새로세시쯤되거든 먹다남은것을 모두건저버려야되고 물이몹시더러워지게되엇거든 가라주시요

◇—◇

금붕어의똥이、꺼어코 길다라면 건강한것이고 희면 먹이가 부족햇거나 병이잇는탓이고 토막토막끈허진것이면 어데고 반드시 고장이생긴증거입니다。병든금붕어는 기운이업고 빗도조치안코 또 기생충이 몸에부트면 금붕어는 몸을 어항에 비비면서헤염칩니다。

기생충이잇슬때는 하얀 사기보시기가튼데 금붕어를 옴겨노코 구두주걱처럼생긴것으로 벌레는 긁어업샌다음 그자리에담배를 엷게 타가지고씨서줍니다。엇재건 병든고기는다른곳에 옴겨노코 물을가려주고 아주 엷은소금물에 몸을씻서주고 자양분잇는것을먹이고……이러케하면 회복이됩니다。

우리네가정의 나뿐풍습

❹ 吳淑根

자연(自然)이란 거기에는 보지못하는 생명력(生命力)이잇는것입니다。음식도 회식은생식보다 맛이잇습니다。그러나 살른채소에는 『비타민』이 파괴되여버립니다。

우리조상하라버지 할머니들은 옛날 옛날에 흑룡강(黑龍江)송화강(松花江)혹은 물줄기에서 얼굴을씻첫고 압록강、대동강에도 림진강、한강물에도 낫을씻첫답니다。

오늘날우리는 왜그러케도 드럽에 안타깝게굽니가。

물론 물에도경수(硬水)는 피부를험하게하고 찬물더운물쓰는데서 잔주름이가기쉽습니다 또『크림』은 세척작용(洗滌作用)이물보다나흔것이나 보제(補劑)는 일상먹는음식을 먹고난후에 일인것처럼 역시세수는 세수대로 하고나서 화장입니다。본래『크림』로 세수를한다는것은 려행중에나 기타부득이한때에 물대신으로쓰기위한것이 상업자의광고수단에 롱락되여 그릇된행습을보게된것입니다。남의문화를 수입하는데 가금이런폐단이 따르기쉬운것은 무조건하고 신용하는데서 생기는일인가합니다。

우리차지

낫선사람

저기 저 양복입은양반、타관사람인가보다。

낫선사람이라고 동리개가 짓네。

가만잇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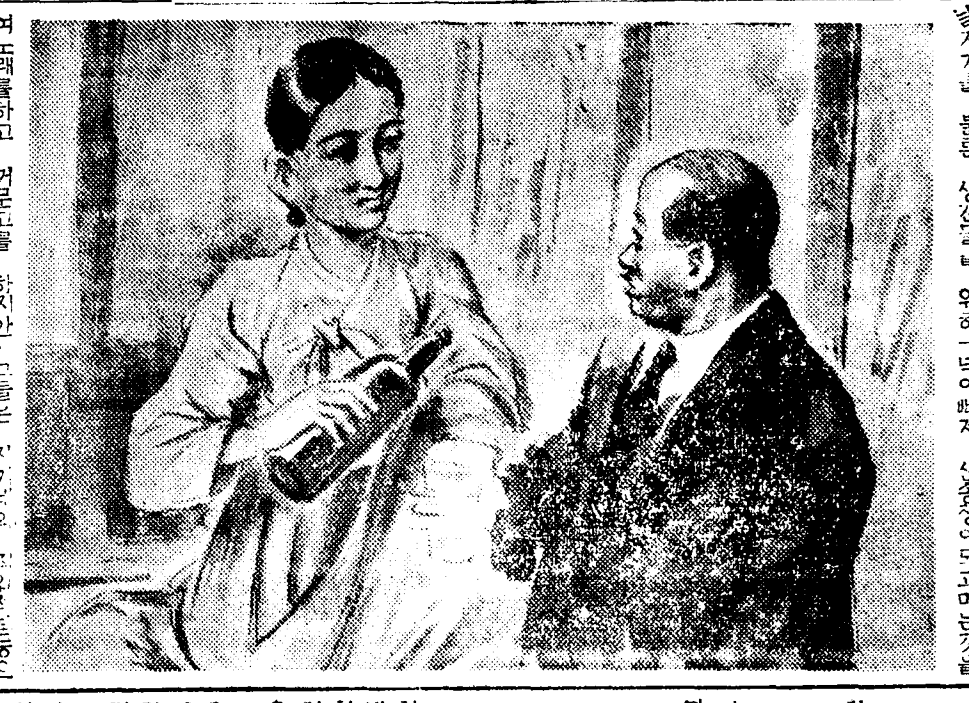
바둑아 감둥아 삽살아 짓지마라

서울게신 우리아저씨 오섯다。

(금촌사람 주영수)

長篇小說 쩰레꼿 【27】

金末峰作 金熊超畵



팔리는시랑 (二)

진수성찬이 그릇마다 넘치는 교자상우에는 백어가튼 기생의흰손이 술잔을 날르고잇다

로마병정의 말발굽아래 짓밟힌 끄리샤 미녀(美女)들처럼 황금의채칙아래 몰려온기생들은 오날자기를 물론 상선들을 위하여노래를하고 거문고를 하지안호면 안되는것이다

죽- 늘러안진 주름잡힌 적동색(赤銅色)의 평면얼굴들이 만족해서 우슬때까지 그들은 춤을추어야하고 쓰디쓴 술이라도 마서야 하는것이다

좌석에 모힌사람이 하나가치 즐거웁도록 한사나히 한사나히에게 은근한 추파(秋波)를 보내주어야만 일류기생이란 영광스러운 렛텔을 유지하여가는것이다。

그때문에 그들은 오죽 한가지의 자본인 애교와 우숨을 길바닥에 굴리는 비라쪽가티 악검어시 허트리고잇다。

우숨—저 고흔 눈이 한번우슬때 독주에취한 사나이들의 넉이빠저 산송장이되고마는것을 그들은 자기의 [illegible]로 너무도 잘안다。

그러기에 이아츰에 집달리(執達吏)의 붉은딱지가 자기의 경대설합에까지 부터버린 흥도가 백만장자의 딸처럼 명랑하게 웃고잇지안느냐

어제밤 도박현장에서 유치장으로 붓들려간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도 계월의얼굴에서는 행복스러운 우숨이 흘르고

오날저녁밥살이 떠러젓다고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을듯고나온 춘심은 무엇때문에 저러케 즐거운 표정인가

우숨! 기생들의우숨!

그것은 두텁게울린 지분아래 좀먹고잇는 슬픔을 가리우는오즉 한가지의 탈바가지다。

짓눈한세상을 수고와 눈물과 한숨으로 그러나 창녀일부라는 부끄러운 운명의락인(烙印)을 평생 짊머지고 가지안흐면 안되는 그들은 인간이란 무대우에서 가장불리한 역할(役割)을 맡아 가련한 희극배우들이다。

『화대밧는 백색노예(白色奴隸)여!』

이말은 여섯달전 어느료정에서 최근호가 옥란을 첨으로 맛나게되는밤 말속으로 부르지즈첫 말이엇다

그날밤 옥란과나란히누은 근호는 눈물에저진 옥란의뺨을가슴에안고

『옥란의 불행을 건저줄사람은 오즉 옥란을 참안해로 마지하여주는 남자라야만 될것을 알겟소?』

하고소곤거릴때

『더누가 날가튼 어린몸을참안해로……』

그때 옥란의 뜨거운 눈물는 이근호의 팔을 적시엇든 것이다。

『나와가튼 남자라도 옥란의맘만 그러타면……』

『선생님 그건 참말이야요』

『내눈에 흙이드러갈때까지 나는옥란의 남편이요』

『저도……저도 죽어백골이되도록 선생의당신의 안해이여요』

첫봄을 마지하는 매화한송이가 빙긋이 봉우리가우스라는 아츰에 최근호와 백옥란는 방한가온데정한수를 떠노코 북향하고 절을하엿다。

이리하여 옥란는 그날부터 근호의에 남자와는 맛나지안키로 근호역시 옥란이외에 여자와는 놀지안키로 그들은 한날께 맹세하여 부부가 된것이다。

그러나 옥란이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외에 옥바둥생까지 여섯식구가 달려잇고 또 올에 여섯살된 옥란의아들이 잇는것이다。

표면으로는 옥바의아들이다 하지만 실상인즉 옥란의 첫남편 정모의 혈육이다。

한달에 일백이삼십원을 가저야 살아가는 옥란의 살림살이는 호의밧든 특십일원으로는 무론수지가 마출리가 업는일이엇다

그러나 사랑에취한 옥란는 자기의대물을 잡히고 옷도전당노로 보탯시언정 근호에게는 한마듸의 불평을 말하지 아니하엿든것이다。

다섯달이지나고 회운의대야못그릇이 마즈막으로 전당잡고가든날

『얘、너그비러뱅이 [illegible] 맛고 언제까지 이러귀고만잇슬생각이냐? 식구들이 각구로벗고잇는데두 여동생감은 [illegible]을생각은 아니허구……이지경이되면 수남(옥란의아들)이 도래년에 학교에 못넛는다』

옥란의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흘러갓다

『정조란것도 결국밥잇고 옷잇는 사람들만이 가질수잇는사치품이야』

이러케중얼거린 그는 근처차전가게로가서 전화를 걸엇다 그날밤 옥란은 근호의눈을피하여 ××호텔에서 조만호씨와 맛나고와다 그리고 두번세번!

닷새동안 시골로 출장갓다가 오날아츰에 서울로 당도한 최근호가 지난밤 옥란이가 바로 자기친실에서 조두취와 지난밤을 꿈에나마 알까닭은 업는노릇이다。

『집에만 백여잇지말고 위선얼마동안 권번에나오면 옥란의생활비쯤이야……』

하는 조두취의 말대로 오날옥란이가 여섯달만에 첨으로연회석에 나와건만 물론 근호에게는 청천의 벽력가치 놀라운일이엇다

冷症이가신듯이낫코 아들까지어든깃븜

定州 崔仙英

(前略)보내주신약으로 치료하여온 冷症 이제오늘 깁븐소식을 先生님께전해 드리게되엇습니다 오래간단에 그지긋지긋하든대하물은 일절업서지고 아래ㅅ배아프든것이 낫을뿐아니라 지금껏 차듸차든수족이 더워젓습니다 그리고도 월경빗이 고와젓슬뿐아니라 가슴답답하든것과 기타여러가지증세가 감쪽가티 업서젓습니다 그나그뿐입니까! 이제 오기다리고기다리든 子福의서름을오늘날이야 버서나게되엿사오니 나시부모 뵈옵낫이 지금에야 떳떳하여저사오며 남편의외입도끈처저서 밤출입도 업서지고애기수태못한든탓으로 시앗보앗든서름 철천지한이업드니 인제 아조남편의사랑을 독점하게되니 이 깁붐무어라다말하겟습니까 꿈이나안인가하고 의심이날만큼희한일이옵시다 선생의은혜는 제생전에 무엇으로든지 갑겟습니다 다 위선한통리사는 일가부인의 부탁으로 주문하오니 곳三十六日분을 보내주시압소서……

다시 남편사랑을 차즌기쁨

春川 洪、玉順

결혼한지五年이되어도 수태치못하야 시부모뵈올낫도업고 더구나 남편은 늣도록 소생이업서 만사에화만내고 밤출입이 잣드니 급기야 조손보긔다고 취첩까지해노코서 낫에만 다녀가고 밤이면 독수공방으로 자복업는서름이 자심던 생각을하면 공연이 한약만장복하면서 칠성단모아노코 새벽이면 일속이 일어나서 정성드리곤 한든것이 지금에와서는 스사로 어리석엇든 지난일이 우습기도하고 한편으로는 분하기도비할데업섯습니다 …두번보내주신 고귀한명약『와세도球』로서 이럿튼서름은 봄눈녹듯이 살아지고서 벌서 경도가보이지안는지가 一個月이나됨으로 漢醫에게 진찰을바다보앗드니 틀림업는 수태라고말슴합니다 집안식구들은 경사라고 모두기뻐하시며 남편도근일에와서는 밤출입도 도모지안케되고 조금이라도 과중한일은 고만두라고 야단이오며 취가하엿든소실도 돌녀보내고 이제는하로밧비산달이 오기만 고대이오니 참으로꿈결가튼생각만납니다 임신중에주의할것을 말슴하여주시고 더게속하게사오니 三十六日분만 더보내주시기바랍니다……

貴社의 지도하에 부부협력하야 곳첫습니다

江原道楊口邑內 蔡福女

……넘우도늣게 감사의말슴 言을 니게되여죄송합니다 일전에貴社께서다낫느냐하는문안을 바덧슬때 넘우노감사하와 깁붐의눈물로 상서하옵니다 참으로貴社이 嗣業이와 아해못나한탄이든우리 집안을구원해주섯스니 무엇이라고더말할수업사오며 지금임신三개월이오니 해산후사진박어보내드리겟사오며 一生잊두고이깁붐을선전하옵니다

가정의 봄은 어린애의 환성으로 꼿이 핍니다

가정에서 간단히 부인병이 근치되는 의사전문약

권위잇는대병원에서 매일수만흔환자를 구원하고잇는약을 처음으로 민간에게 제공하는약인만큼그신용과적확한효과는더말할것도업사오며사용법도퍽간단하오니주무시는동안에남몰래근치되는 약입니다

『와세도球』는 고흔 미라色의말낭말낭한약이니 약한개를국부속에 너코 주무시면곳 접부녹아서 약기운은 자궁속깁히 퍼저서 그곳에잇는 회근＝족병균을 꼿축이고 전신에퍼저서 모든증세를나스려줍니다

더구나 넷키에 조금도이상한기분을주지안코 재래의넛는약처럼 거묵이흘러나오거나 속옷을 들업피거나 찌걱이가남어서 나오는법이 업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몰내有名한大病院에가신것과 똑가튼치료과를 어들수잇는약이오니속히병고에서 버서나실려면조금도 주저마시고조선국문으로된병세를자서히 쓰신후

東京市芝區通新町十三ノ一
總代理店 合名會社 河原商店
振替東京三五〇一九番 으로주문하시면 대금이환으로도 송해드립니다

日東製藥合名會社製品

——가약——
十二日分……一圓二十錢
廿四日分……二圓三十錢
卅六日分……三圓四十錢
百四十四球…(病院用)(더욱큰)……十三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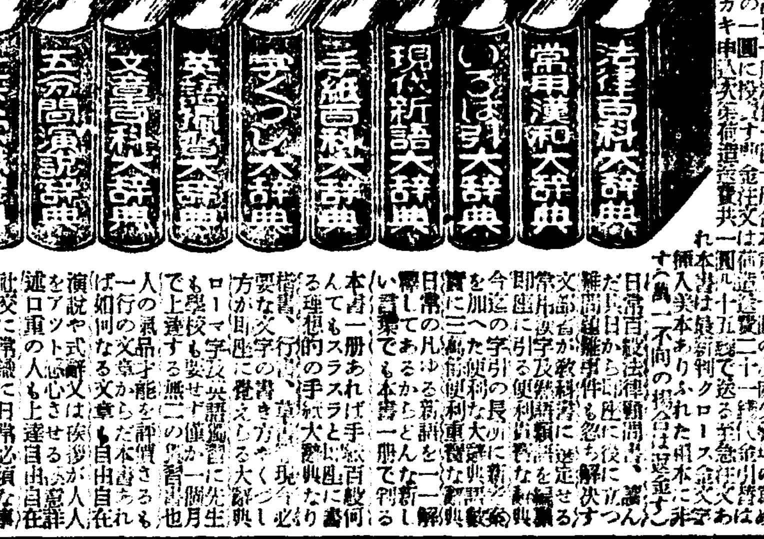
통지하시는대로 어느분의게도 조선국문으로쓴 女性의新生理學을 거저드립니다

와세돈球로 만흔환자를 구원하고잇는 有名한 病院의 一部

東京帝國大學附屬病院
東北帝國大學附屬病院
京都帝國大學附屬病院
九州帝國大學附屬病院
日本齒科大學附屬病院
大阪齒科大學附屬病院
長崎齒科大學附屬病院
日本赤十字病院
東京鐵道病院
大阪鐵道病院
名古屋鐵道病院
仙臺鐵道病院
東京市電氣局病院
聖路加病院
橫濱十全病院
橫須賀市立病院
市立神戶市民病院
弘前市立病院
大分縣立病院
救世軍病院
岩手醫專附屬病院
聖바나바病院

緊急處分大投賣斷行

辭典拾冊合本の一圓 分冊は各四十錢



特別景品無代進呈 實用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手紙上手は一生の德!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解る大評判手紙の本

(不向返金)

京一進呈 いろは引大辭典 特價一圓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一圓五十錢で教へた秘法書を公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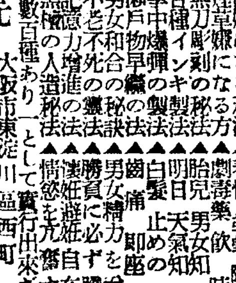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人心觀破の秘法 即座隱身の秘法 思ふ事叶へる秘法 白髮の生えぬ秘法 男女傳交增進法 人の賢愚を知る秘法 秘密文通の秘法 酒嫌になる秘法 煙草嫌になる秘方 無刀で人を刺す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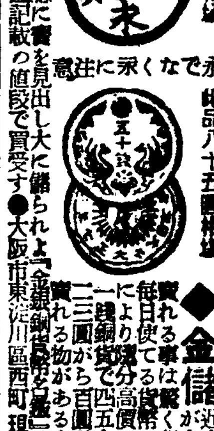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男女共に心得置くべき

諸礼法 婚礼式 世間百般 挨拶の仕方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金儲 永久にくなで注意 比品五十錢相場 比品八十五圓相場 現代出版社

學藝

一論壇議題一 文化의民族性과世界性 ④

韓植

또民族의完全한形成過程은 眞正한 意味에잇서서는 資本主義의 發展過程에서 規定되는것이나 民族、民族性이라고 하는것은資本主義에 依하야 처음으로 發生하는것이안임을 알어야하겟다。그리하야 長時間의 歷史의產物로서의

民 族性을如何히 取扱하며 그러한 民族性가운데에는如何한 푸라스와 마이너스가 潛在하고잇는가等의 問題에對하여서도 充分한 考察이잇지안흘수가업는것이다。單純히 民族性을完成한 意味에서 말하는近代의民族國家에 附隨되는것으로만 생각하야 그를一蹴하거나 或은 過去의文化가 大槪支配階級의그것이라는 原則으로써 俗惡한社會學者처럼 公式化하야 가지고 모든古典文化의 階級性만을 決定함으로써 滿足하는 따위의理論으로부터, 어서오리는 脫却하여야하겟다。그와가튼 階級性決定公式으로는 우리는엇지하야今日까지 希臘文化에 尊敬과魅力을늣기는가를 說明할수는 到底히업슬것이다。希臘文化는 더말할것업시 社會學的分析으로말할것가트면 그時代를 構成하는奴隸所有者의 階級의 文化라고할것이다。그리하야 一言之下에우리가 排擊하지안흐면 안될文化가되고말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이와가튼 拙劣한社會學的分類와 렛텔貼付와는 달리 그와가튼原則은 充分히 諒解하면서도 그 文化中에서 希臘文化의本質的인

自 由明朗、希臘天才들의知識、合理均勢의 사랑그 美術에서보는것가튼 純眞高貴이와가튼것등을 一切包括하는 그들의 神話가證明하는바 偉大하고 豐富한 판타지ー、이와가튼 民族性의特徵的內容을 얼마든지 贊嘆하며 吟味하지 안흐면 안될것이다。

그리하야 우리는 民族性槪念을 抽象的으로 合唱하는 單純한傳統主義者와 그와反對로 呪文으로써 抹殺하여버리는 輕率한 公式主義者와의 두者어느便에도 加擔하지안흘것이다。

우리의方法은 抽象과公式의一般化의否定과 肯定이아니고 모름지기 古典時代와 그文化의移動變遷、民間習性、方言等의研究 口傳民謠、生活者로서의 農民歌謠等의 그時代、그時代의 虛僞업는代辯的 形態를 샅샅치들처보며 政治、社會의 消長과倂行하면서 아름다운 우리文化의民族性을 探索할수가잇는것이다。新羅統一時代의 遺產가운데의大部分이 藥師佛、觀音像가튼 佛敎傳來의 樣式을 그냥차지하고 잇섯다고 할지라도、그中에는民衆的天才들의 創作으로써 古典的素朴과衆天的影響美에 充滿한 彫刻等、東洋古代 藝術中에서도 第一級으로

稱 揚밧는 創作品들을 古典文化의 最大遺產으로써 그正當한位置에노여、다시금吟味를 始作하는데서부터 民族文化의 精神을 探索할수가 잇는것이다。

그러나 今日에잇서서、이러한 意味에잇서서 文化의自由스러운 發達——그는世界性의 獲得으로부러만 可能한것이나——을抑制당하는 이때에잇서서 文化의擁護는 世界文化푸론트의 共同의使命이되고잇는事實을、우리는 看過할수가업는것이다。偏狹한民族主義가 파시즘의潮流에휩쓸려 文化에對한바——바리즘을 發揮하고잇는때에、그에對抗하여、眞正한意味에잇서서의 文化의 民族性은、世界性을帶同하며、그의聯關미터서 해야만비즐 發揮할수잇다는觀點에서 文化의世界性이더욱强調되어야할것도 緊急한일이라고하겟다。히틀러의股肱이게펠스는 文化는 絶對的인것도아니며 世界史的인것도아니라고 明言하야 第三帝國의 文化를 民族的인것에 限定하여야하겟다고 强調하고잇다。그리하야 印刷技術이 極度로 發達된今日에잇서서

焚 書의刑으로 모든猶太人系統의 文化를 絶滅하려는 아나크로니즘을 敢行하고잇는 事實은 그들이 民族文化의 美名아래에서 文化의世界性을 否定하며 民族性을 다만 좁은 地理內에 閉鎖하며 人間性의 自由로운 發展을 期待하여야할 高貴한 文化의 成長을 阻止하야『피와흙』이라는 種族的、神秘에 復歸하자하는것을 알수가잇다。일즉이 千八百十七年 용거헤ー게리안에 對한 푸로샤政府의 禁壓에서도 이와가튼 焚書가 敢行되엿든것이다。그러나 今日에까지 나머저잇는것은 도로혀 헤ー겔의 哲學文化이고 푸로샤政府의 禁令思想이 아니엿다는 歷史의 作亂을 그들은 알것이다。그리하야 우리는 쇼ー비니스틱한 그릇된 民族性의 英雄인 프리ー드리히大王 빼스막、카이자ー의 文化가 아니고 文化의 世界性을 追求하므로써 眞正한 民族文化를 빗나게한 쾨ー테、베토벤과가티 게르마니아의 土地에 뿌리를 기피박으면서 全世界의 蒼空에 向하야 茂盛한 枝葉을 伸長시킨 文化에서만 우리들의

展 望할수잇는 文化의 價値의 典型을 일수가잇는것이다。獨逸의 老大作家토ー마스、만이『現代의 獨逸政治가 獨逸自身에도 或은世界에도何等의 裨益을줄수가업나는것을確信한다』『나는내가 獨逸사람이안이라고 勇敢스럽게 二三年來로 全世界에向하야 喧傳하고잇는나치스의 사람들보담도 멧倍以上으로 獨逸의 깁흔精神的傳統에뿌리를 박고잇는것이다』라는말의 意味를알수가잇다。

그리하야 이때까지의獨逸精神가운데 優秀한것이잇스면 그는곳 世界市民性에屬함이다 라고한그의言辭에따라서 다음과가튼쩨ー테의말을 더욱添付할수가 잇는것이다『文化의最低階級에 잇서서는 恒常國民的憎惡가 가장强하게 가장熾烈하게 보이는것이다 그러나어떤一定한 階段에잇서서는 이러한憎惡는 全然消失하야 말할것가트면 우리들은諸國民의共通한立場에서나 우리들의近隣의國民의幸福 또는 悲哀를 우리들自身의 國民中에 生起한것처럼 感得하는것이다』

倦怠 (二)

李箱遺稿

나는 개울가로간다。가물로하야 너무나 食弱한물이 소리업시 흐른다。뻐처럼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안나?

너무더웁다。나무닙들이다 축 늘어저서 허덕허덕하도록 더웁다。이러케 더우니 시내물인들 서늘한소리를내어보는재간도업스리라다。

나는 그물가에 안는다。안저서 자ー무슨題目으로 나는 思索해야할것인가 생각해본다。그러나 勿論 아모런題目도 떠오르지는안는다。그러타면 아모것도생각말기로하자。그저 限界업시넓은 草綠色벌판、地平線、아모리變化하야보앗댓자 結局稚劣한曲藝의域을버서나지안는 구름、이런것을 건너다본다。

地球表面積의百分의九十九가 이 恐怖의草綠色이리라 그러타면 地球야말로 너무나 單調無味한 彩色이다。都會에는 草綠이 드믈다。나는 처음 여기漂着하얏슬때 이 新鮮한草綠빗에 놀랏고 사랑하얏다。그러나닷새가못되어서 이 一望無際의草綠色은 造物主의 沒趣味와 神經의粗雜性으로말매암은 無味乾燥한 地球의餘白인것을發見하고 다시금놀라지안흘수업섯다。

어쩌作定으로 저러케 퍼러냐。하로왼終日 저 푸른빗은 아모짓도하지안는다。오즉 그 푸른것에 白痴와가티 滿足하면서 푸른채로잇다。

이윽고 밤이오면 또 巨大한구뎅이처럼 빗을일허버리고 소리도업시 잔다。이 무슨 巨大한謙遜이냐。

이윽고 겨울이오면 草綠은失色한다。그러나 그것은 襤褸를갈기갈기찌즌것과 다름업는 醜惡한色彩로變하는것이다。한겨울을두고 이荒漠하고醜惡한벌판을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래도 自殺悶絶하지 안는 農民들은 상하기도하려니와 巨大한天痴다。

그들의一生이 또한 이 벌판처럼 單調한倦怠一色으로 塗布된것이리라。일할때는 草綠벌판처럼 더워서숨이칵칵 막히게 숭거울것이오 일하지안흘때에는 겨울荒原처럼 거츨고구주레하게 숭거울것이다。

그들에게는 興奮이업다。벌판에벼락이떠러저도 그것은 雷聲끄레가끔잇는茶飯事에지나지안는다。村童이 범에게물려가도 그것은 猛獸가사는山村에 가끔잇는 神罰에지나지안는다。實로 電信柱하나 업는벌판에서 그들이무어슬 對像으로 興奮할수잇스랴。

八峰山 등을넘어 鐵骨電線柱가 늘어섯다。그러나그 銅線은 이村落에 葉書한장을 내려트리지안코 섯는채다。銅線으로는 電流도 通하리라。그러나 그들의房이 아즉도 松明으로 어둠침침한以上 그 電線柱들은 이마을 洞口에늘어슨 포푸라나무와 조곰도다를것이업다

그들에게希望이잇는가 가을에穀食이 익으리라? 그러나 그것은 希望은아니다。本能이다。

來日。來日도 오늘하든繼續의일을해야지 이 끗업는 倦怠의來日은 왜이러케 끗업시잇나? 그러나 그들은 그런것을생각할줄모른다。間或 그런疑惑이 電光과가티 그들의 胸裏를스치는일이잇서도 다음 瞬間 하로의勞役으로말미암아 잠이오고만다。그러니 農民은참不幸하도다。그럼ー이 凶惡한倦怠를自覺할줄아는 나는 얼마나 幸福된가。

二隨筆二 花春意匠 ②

李孝石

美의辯

——美의 特權가티 큰것은 업다。美는 美意認定하지안는 사람까지 感動식키고야만다。구지 콕토오의말을 빌어올것도업시 美의 威力가티 큰權威를 나타냄은업다。美는 말하지아니하고 자랑하지아니하고 聲내지 아니하나 스스로 無言의 威力과 沈默의 권위를 發揮하야 接近하는 對象으로하야금 모르는결에 魅惑케하고 讚美케하고 服從케하고야만다。세상에서 美以上으로 支配的인것은업스니 제아무리偉大한 至上의것이라도 美의아페서는 술잡이 어지러워지며말이업서진다。美는 말을빼앗고抗議를 용납하지아니하고 挑戰의 意思를 未前에 抹殺消滅시켜버리는까닭이다。가랑 힘아페는 잠시屈服하는限이 잇더라도 마음까지 빼기는법은업스나 美에의屈服은 絶對的이여서 澤然無垢의 還情이잇슬뿐이지 울적한反意를 마음속에 內包할겨를을 주지안는다。산욕형을 壯士라도 美의압해서는 武裝을풀기를 붓그러워하지안흐며 드되어 그奴隸가되기를 自願한다 美는 決定的이고 運命的이고 따라서 때때로 悲劇的이다。구롬의 美는 구롬에만限한것이요 薔薇의美는 薔薇以外의것에서는 求할수업스며 꾀꼬리의美는 꾀꼬리만이가지는것이요 사람의美 또한그러하다。甲의美는 乙의美와 區別되며 丙의美가 아무리嘆息한대야 丁의美를빼앗을수는 업다。三角의 한구통이에서 사랑에 울고 불고 하는 가련한이의 悲劇은 늙알라 발서 殘忍하게도 美의 神이 決定해버린것이다。美의 神은 冷情하고 固執쟁이여서 이런悲劇에는 구원의 道理조차 업다。美는 그것이 가저오는 깃봄이 無限히 큰反面에 그것이 要求하는 犧牲도 또한크다

그러나 사람이 요구하는것은 항상 그깃봄임으로 옹산한 犧牲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禁物이다。

——아름다운물건은 영원의 깃봄 그것은 결코 사라지는법업시 갈수록 귀여워지며 우리에게 寂靜를주고 安息을주고 꿈을주고 健康을주고 편안한 呼吸을주고……

너무도 유명한 키이쓰의이 노래는 美의 德을말하야 남김이업다。아름다운것이주는 깃봄가운데에서 가장큰것은 꿈과 健康과 感激이며 이것을어들때 비로소 生命의 보람이난다。美는 참으로 사람의永遠의追求의 對象이며 낫이나 밤이나 한결가티 念頭를 支配하는 영원의 題目이다。하로 한때라도自身의美의 意識과 自覺업시 呼吸하는 女人이라는것을 우리는 想像하기어렵다。美는 生命의 動力이요 無償의보배요 至上의特權인것이다。

美를말할때 반다시경제를說明하고 歷史를캐야한다면 稚劣의비웃음을 免하지못할것이다。歷史는客觀을變更하고 客觀이 主觀을 規定하기는 하나 몃世紀쯤의 時間이 美意識의 基準을 그러케 호락호락하게 뒤집어 엎을수는업다。千年前의麗人은 오늘에도 麗人일것이며 오늘의 機械美는 古人의 또한 讚嘆할바되겟고 한송이의 薔薇는 古今의詩材로스이지안엇는가。美는香氣에서感動만을要求하고 批判을拒否하는것가타。구지批判을시험할때에는香氣는그만사라저버린다。美古典美나 浪漫美나 現實美나各各 그美의 本質에關한限 根本的差異는 介在하지안는것이며 必要한것은 그表現의態度요重要한것은 될수잇는대로의 感動을奪取함이다。소포크레스의 悲劇美에 몸을 떠는사람이면 헴레트의 浪漫美에 感動할것이며 나려와 살로메의 頹廢美에 구타여 눈섭을 찌푸릴것업시 솔직하게 醉하야보는것이 興일것이다。이領域에서 感動한사람이 다시나려와 끌킈의 어머니의擧動에 가심을죄이다고하야도 결코矛盾은아니며쇼오로홈』의『악씨이냐』에게 끌녀도무관한것이다。美에關한限 一律로 歷史를固執함은 固陋하고 淺薄하게보일뿐이다。

科學

人類學上으로본 原人에 對한 考察 ⑥

尹富炳

여러가지 說中에 現在에는 一元一統性의人類化成論을 主唱하고잇는『슈벨베』의說이 가장 有力한說이기때문에 以下『슈벨베』의說을 引用하야 論述코자한다。

『슈벨베』는 原始猿類과가튼擬猿類를 우리人類의先祖라고하얏스며 이것으로부러人間、猿等이化成한것이라고하야 第三表에示한바

第三表

도리오피테스

擬猿類

廣鼻猿　狹鼻猿

類人猿

피테칸트로푸스

原人

現生人類

가튼系統樹를만드럿다 이表에依하면 擬猿類의先祖로부터 조곰進化하야 一個의芽를내엿다、이것이廣鼻猿、이곳에서또다시進化하야 芽를내인것이狹鼻猿、다시더進化의過程에서類人猿『피테칸트로푸스』原人等을내이면서 現在의人間까지 進化하야왓다는것을說明하얏다。이表에依하면 人猿과人間과는 共同의祖先으로부러 起始한것으로서、靈長類進化의 狀態는맛치 樹木의 가지가 分岐한것과 가튼 狀態이다 表中廣鼻類는 鼻의幅이廣한猿으로서 普通新世界猿이라고 부르고잇다。또狹鼻類는 尾長猿或은 東洋產의 猿과가튼鼻幅이狹小한 猿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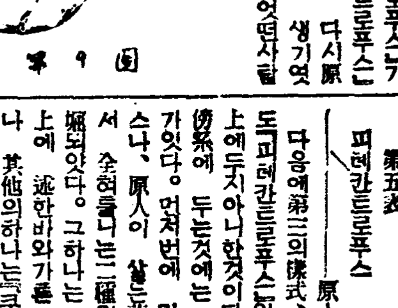
『도리오피텍스호란디ー』라하는것은 佛蘭西에서發見된類人猿보다도一層人間에가까운 猿의化石이다。또類人猿은『신팡제』『고리라』『오ー랑우ー탕』『기봉』等으로서 猿의第一人間에갓가운 類人猿에加하야하는 學者도잇다。이것들의類人猿의中에『신팡제』는가장人間에갓가웁고『기봉』은가장멀며『고리라』와『오ー랑우ー탕』은 그中間이다。또擬猿類는 夜間에活潑히動作하며또 樹上生活을하는 小獸이라고한다

靈長類의化成은 以上과갓다하그러면『피테칸트로푸스』와原人은엇더位置를占하고잇섯든가。이것에對하야『슈벨베』는다음과가티四通의變化가 可能하다는것을 述하얏다。

第四表

피테칸트로푸스ー原人ー現生人類

第一은第四表와가티類人猿과共同先祖로부터『피테칸트로푸스』가 생기고 다음에『피테칸트로푸스』로부터原人이生기엿스며 다시原人으로부터 現生人類가 생기엿다고하는것이다。이것은어떤사람이든지 理解키쉬운說이다。그러나『피테칸트로푸스』는先述한바와가티 너무나現在의 人間과는틀니는點이만흘뿐아니라 疑問이만흔 化石이기때문에 이것을系統中에



第1圖

넛치아니하고 傍系에두기도한다 即人類의化成中에 생기기는하얏스나 곳『純系』에있다고보는때에는 第二의樣式이나오게된다。이樣式 即第五表에依하면 原人으로부터 現生人類가생기엿스나『피테칸트로푸스』로부터는 아무것도생기지 아니하얏다는것이다

第五表

피테칸트로푸스

原人ー現生人類

다음에第三의樣式、이것은原人도『피테칸트로푸스』와가티 幹統上에두지아니한것이다。이原人을 傍系에 두는것에는 훌융한理由가잇다。먼저번에 말할것을이것스나、原人이 살든舊石器時代에서 全혀틀니는 二種의 人骨이發掘되엿다。그하나는 至今까지以上에 述한바와가튼 原人이엿스나 其他의하나는『쿠로마니용』型人類라고말하야 이것은現在의人間과 퍽이나잘가튼 特徵을가추어잇다。그리하야 이것을最古의 現生人類라고 부른다。原人은舊石器時代의中에도 묵은(古)時代 即前期舊石器時代에 棲息하얏섯스나『쿠로마니용』型人類는 舊石器時代의새時代 即後期舊石器時代에서 發掘되엿스니 이것等二種의人間이살고잇든 時代에는多少틀님이잇슬것은 勿論이다

『쿠로마니용』型人類의 化石으로는『쿠로마니용』、『호모、아우리나헨지스』、『그림마ー다옹』等이잇다 但『그리마ー다옹』은 第四紀初期의人間으로서『피테칸트로푸스』와『마우엘』等과가티 原人보다 훨신먼옛時代의 最古의現生人類이다。이『그리마ー다옹』(第九圖)는 現生人類와 恰似한頭骨을 所有하면서 一方原始的特徵을 가추어잇다。以上의理由로因하야 原人보다도 가장우리現在의人間에 갓가운『쿠로마니용』型人類가 우리의先祖인가한다。

따라서 原人은 現生人類의先祖가아니고 人類化成의 途中에생기기는하얏스나 一定期間에만棲息하얏고 그後絶滅한人間이라고 할수가잇스니 이것이 第三의樣式이다(第六表)

第六表

피테칸트로푸스　原人

現生人類

以上의 三樣式外에『피테칸트로푸스』와 原人을 傍系에 두고 原人이『피테칸트로푸스』로부터 생긴것인데 其後 곳 滅亡하얏다는것이잇스니 이것이 第四의樣式이다(第七表)

第七表

피테칸트로푸스ー原人

現生人類

以上은『슈벨베』가 提唱하고잇는 人類化成의 大要이다。이『슈벨베』의說은 渾沌狀態에잇든 人類化成에 無比의 好模範으로서 만흔 人類學者가 感謝하는바이다。그러나 이『슈벨베』의說이라할지라도 極히 적은 材料에 依하야 此를 研究한것이기에 어느때 新發見으로 因하야 顚覆될는지 알수업다。우리는 이곳에서 偉大한 新發見이 생겨서 人類化成이라는 重大問題가 하로밧비 解決하기를 希望하는바이다。

以上으로서 原人에對한 論述을긋치며 後日또機會가잇스면猿과人間이라는 問題에對하야 貧弱하나마 調査研究한바를 써볼가한다 (完)

…新…刊…評… 『純情海峽』을읽고

金珖燮

咸大勳氏作『純情海峽』이 몃個의短篇과아울러 한卷의單行本으로出版되엿다。

지난廿九日 氏의 十年에가까운 文壇生活을兼하야 小說『純情海峽』出版紀念會가잇슬때 나는 于先 그盛大한 모임에서 作家 咸大勳氏의 人間性이여러가지斷面과角度로 祝辭의內容이되는光景을 보앗다。

實相은 作品이 좀더 벌거숭이가 되여야할듯하면서 興味와 感激이 作家自身에 모일때 나는 이『純情海峽』이 가진抒情의世界가作家咸大勳氏의 抒情의世界를 가장 濃厚하게 나타낸때문인가 생각해보앗다 이作品은 무엇보다도 感性의 眞理를 어들라는 作者의心境에 흐르는藝術的衝動에서인까닭이다。

× ×

『純情海峽』은 그일홈이우리에게 주는抒情과가티 極히哀戀한 스토리를 主題로한 中篇小說이다。임의 映畵化까지되야 널리알려젓거니와 素姬라는 아버지도업고 어머니도업는가난과 孤寂에 파무처서살어가는 純眞한 性格의自然을가진 한女子를 中心으로하야그가꿈꾸고어든 光明압헤或은우리가 市井에서흔히 볼수잇는富者집大學生도 登場되며사랑을 진니고 現實에 놀이어 벙어리기티속라는 小學校敎員도 나타나며 探色을 한때라도 게을리하지안는 만몬의 師徒인 社長도나타나서 現實的雰圍氣가 背景되면서 愛慾、嫉妬、誤解、不安들이 縱으로 橫으로 재여서 讀者의 感情의線을 끄집어시 닷치려하면서 本來의 意圖대로『해피엔드』으로 끗난다。거기서부터 또하른人生이 始作될지는 몰르나도 男女의 幸福한 結末이엿다。

× ×

過去의評論에잇서서 咸大勳氏는 恒常 그知性을 社會的關心에 嚴肅하야왓고 또小說을쓰기 始作되던부터도 그長篇、短篇을 通하야 社會의不均衡 乃至 거기의 基因되는各種情緖의 具象化를 描寫하여온것이 그作家的意圖의中心이엿다。

그러나 이번 이『純情海峽』은 勿論 現實에依據된 情緖의事實에는 틀림업스면서도 過去의 그것을 떠나 純粹한 情의 世界를 그려내랴는데 全力을 다한 자취가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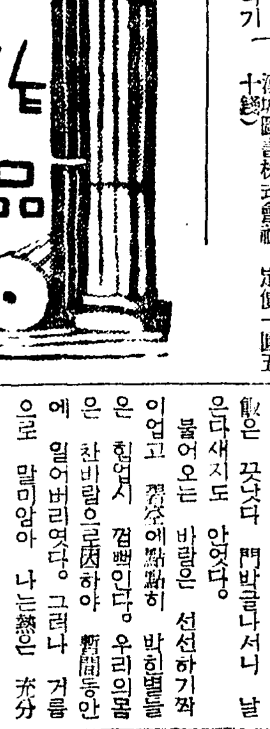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作品에는 哀戀한 抒情的表現이 散文이 散文된바를 傷하지나 안흘가하는데까지미친다。

이點에서 自然描寫가튼것이 갈금 詩에흘러서 哀傷을주며 따라서 거기에부다치면 不幸한素姬의運命이 더욱애처러운 印象을 讀者에게주나 作者는 絶望된人生에서 希望이달린世界의活面에 그 술픈主人公을 引導하라는 現實的 態度에서 그것을 求하고잇다。

小說은 現代에와서 時代를 思惟하는知的職能을 發揮하는 階段에 屬하고잇다。그러나그 出發은 結局 人生이나 社會에 잇슬수잇는 얘기의構成임에 틀림업다。그러므로 小說家는 恒常엇던 客觀에對하야 얘기하라는 素心을 要한다。이點에서 咸大勳氏는 누구보다도 小說家인데가만타。그 스토리에 對한興味가가장 端的으로 나타난것이 이『純情海峽』이다。스토리의 構成에 너무도 만히努力한끄러事件과場面의 移動이 映畵的手法에 넘우나 가까워젓다。여기에對한 是非는 別個의獨立된 理論이 必要하겟지만 何如턴 現代小說이 반드시 試驗해보고십흔衝動을 表示하여다고도 볼수잇다。

이反面에 作者가 性格에 좀더 肉迫하지못하고마는데가잇다。性格의運命에 同感되고同情되여버리는 咸大勳氏의 거즈른듯하면서 弱한 人間性이보이는듯하다。모든作家는 自己가 描寫하라는데잇서서만은그것이 自然이거나 社會거나 性格이거나를 勿論하고 殘忍하게까지 뒤지고 파고하여야할것이다。殘忍하게까지 探求하고 解剖하고 그起伏되는 因果를 白晝에 내여노는데서作家는 性格들과 함께 嘆息하며 함께 울수도잇다。作者咸大勳氏는 作品中의 性格에너무 多情多感하엿다는點에서나는 좀더 殘忍하엿드면 하고십다。

그러나 小說『純情海峽』은 한個의 長篇抒情詩와갓다。事實에對한 科學的發見이나 描寫보다 한個의 感激된 浪漫의 世界를 形成하엿고 따라서 作品의 感性이 讀者의 感受性을 哀戀하게 끌고가는 作品이다。(發行所 京城府堅志町 漢城圖書株式會社 定價一圓五十錢)



智異山登攀記 (四)

養正山岳部 崔基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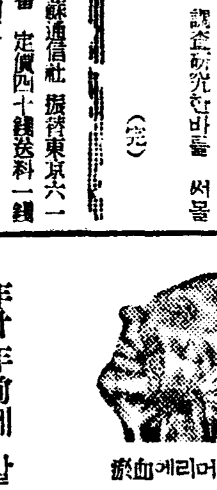
어느듯 밤은 끝는다。그러나 그들먹을자리는 어데며? 잘자리는 어데인가? 沙漠에서는 오아시스를 찾지못하는것이 旅客의한이라건만 우리는 多幸히도 오아시스도찻고 더구나 人家까지 만나지안엇는가? 그러나 一夜를 공게샐수업는 가엽슨 客이되엿다。그네들은 그거짓업는눈으로 우리를 볼수업는것이엿다。명家族을 이리저리 몰어서 겨우 한間방을 우리에게 빌려준다。天使와가튼 그네들! 慶世를 몰르는 그네들! 솔직한그네들! 깨끗한 그네들! 우리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고맙고 반갑기 짝이 업다。우리는 그들에게 百拜謝禮하고 房에 들어서 넘밥을 먹엇다。그들의 눈은 이상하게 도커진다。처음보는살밥! 오래간만에 보는 쌀밥이엿다。그들은 이곳서 오즉甘藷만을 常食하는가련한사람들이다。어두운 등잔불에 자세히 보이지는 안흐나 그血氣업는 顔色과 힘업는눈동자엉크러진 머리 멀ー것케 빗취는 筋肉等 모ー든것이 가엽고 불상하기짝이업섯다。그러나 그들의 얼굴에는 알수업는 仁慈한 빗을 볼수가 잇섯다。그들은갈한다『서울은求景이 조코 滿洲는 살기가 조흡되다! 이곳도에초는 땅이 넓고 곡식이 잘되대서 새로운 希望과 뜨거운理想을 가지고 드러왓다가 一年을지내고 보니 家族은 만코돈은업고 다시 世上을 차저나갈래야 그림조차업서서 허는수업시 이곳에 부러잇다우!어저다해나사날지안흐면 겨우連命이나하고 그러치못하면 끼도빼노흔날이 한두날이 아니라오!그래두 해마다가稅니 地稅니 敎育費니 무어니 무어니해서 내일부러 까불리는 한이 잇드래도 머나먼 山길에 무거운甘藷지고 나간다우!이런서러운데가어데잇수!이런답답할데가 어데잇수!조혼世上을 求景도 못하구하며 그들은 서울을 보고시퍼하고 滿洲를가고 시퍼한다。그러나 우리는 어안이벙벙하야그들에게 充分한慰安을 주지못하엿다。

이튼날(二十二日)새벽 눈이떠러지자 나의머리에는 天王峰(主峰)이 떠올럿다。우리의 成敗는 오날 하루에달렷다고 生覺할제 나의筋肉은 움추려들고 精神이 펄적난다。午前六時半에朝飯은 끗낫다 門밧글나서니 날은다새지도 안엇다。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하기짝이업고 碧空에點點히 박힌별들은 힘업시 껌뻑인다。우리의몸은 찬바람으로因하야 暫間동안에 일어버리엿다。그러나 거름으로 말미암아 나는熱은 充分히 찬바람에 對抗할수 잇섯다 東北으로 向한길을 잡어든지約四十分이 지나니 오른쪽으로日岩과 月岩이 구버보이며 同時에 길은 深鬱한 密林사이로 드러가며 東便으로 구부러진다。이곳으로부터는 積雪도甚하고 巨木의석어넘어진것도 만어서 것기에도 매우 困難하다。大體로 길은 連峰의北麓을돈다。올너내리는 變化가大端히 甚하야 그다지 갓부지는안타。

午前九時正刻에 우리는 잔돌(細石)의最高峰에 到着하엿다。잔돌은 正南向의 金잔되로 덥히고 이를그대로의 잔돌이다。부서저잇는 돌들은 맛치사람이 일부러 깨처노흔것도갓다。東西는 約四키로나되고 南北은二키로좀되는 椭圓形의盆地이다。樹木은 하나도 볼수가업고 雜草만이 茂盛하엿슬 장치만흘 알수가잇다。멀리 西南端으로는古刹靈神寺의 옛터만이내려다 보인다。般若峰、老姑壇等의 雄姿가보이고 天王峰(主峰)의 壯嚴한貌樣이 눈압헤 각가히 보인다。九時二十分 잔돌을떠나 如前히 눈에 잇끄러지고땅에미끄으며 高山風致가 놉흔한 枯木이 만흔 가운대를지나장뚝메이(재)에 이르니 午前十一時엿다 조금더올르니 어름과바위사이에서 맑은 샘(泉)이좔좔 흐른다。눈으로몸을 식히려든 우리는밋칠뜻이 반가웟다。그엽헤는 허무러진 터만이 남어잇다。이로부러는 비탈이 大端하다。더구나 모두가 氷板이되여잇다。밋끄러지고 잡바지며巨木이蒼蒼한 深林을 버서나니 길은 小峰의 北麓을돈다。눈은길이 넘치도록 싸여잇다。기며 뭉기며 小峰을 돌아드니 自然의花崗岩으로된通天門이 雪中에 뭇치여잇다 天王峰에 通하는 門이다。우리는 이門을 지나 午前十二時正刻! 저 天王峰(主峰)을 完全히 征服하엿다。그瞬間우리는 목소리를다하야『萬歲』를 連하야 불럿다。養正의힘잇는校歌도 智異山上의 넓은蒼空을 울리엿다。

海拔 一千九百十五米突! 그얼마나 놉흔山인가!우리가 그얼마나 두려워하든 山인가!우리의 宿望은 오날(二十二日)로서 遺憾업시 成就되고말엇다。오즉 智異山絶頂에서만 볼수잇는嚆活한 碧空!구름구름 업데인 連脈들! 或은 酷寒의 嚴冬을或은 和暢한 芳春을 일우고잇다。우리는마치 最後의勝利를 獲得한 覇王과갓고 磐礡이업데인連脈들은 屈服을드리는것갓다。우리의 가슴은限업시 버러지고 周圍에잇는 萬物들은限업시 적어보인다



▲ゴリキイ文學論 ナウカ社版大竹博吉譯(譯序)文藝放談 젊은作家들과談話 젊은作家에게傳하는片紙 社會主義리얼리즘創作技術에對하야 文學에對하야 戲曲에對하야 詩의테ー마에對하야 兒童文學테ー마에對하야 文學과映畵外四篇 發行所東京市牛込區矢來町三十六言叢社 定價一圓廿錢(和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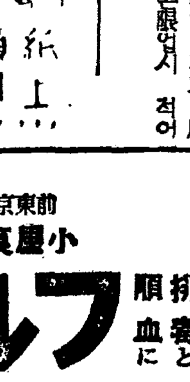
▲月刊ロシヤ 五月號(內容)特輯 極東ー戰爭?平和? 蘇聯重工業의現狀과諸缺陷 陰謀事件後의『랄린政權 黨活動의缺陷과 陰謀派의淸算 世界의蘇聯觀米人이본 日蘇漁業關係 隨筆時評、蘇聯邦海軍論叛等 其他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の內二丁目二 日蘇通信社 振替東京六一五〇八番 定價四十錢送料一錢五厘 (和文)

▲學海朝鮮 五月號 金貞植先生記念號 發行所 京城府外崇仁面貞陵里三七八 學海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四番 定價十五錢

▲가톨닉少年 五月號發行所 間島省延吉街 가톨닉少年社 振替京城一五〇二六番 定價八錢 送料一錢

▲國民法律 五月號 發行所 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 振替東京一六七六番定價十五錢

▲東京朝鮮新報 第四十二號(月二回)發行所 東京市神田區小川町三ノ一〇 東京朝鮮新報社 振替四六一二〇番 定價一部五錢



【問】專檢試驗은어데서치르며試驗科目은? 한번에全部를受驗하는지? 不然이면 自由選擇하여 몃가지 式이든지任意로受驗할수잇는지요(受驗日字는大槪何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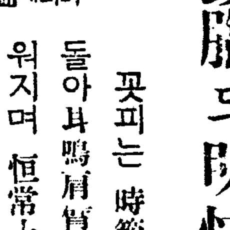
【答】이事項은 官報에나기는합니다마는 詳細한것은總督府學務局으로 問議하시오 (係)

이즌듯다시돗는病毒은

耳鳴、肩臂痛、부름으로呻苦하고 上氣、眩暈에苦痛을밧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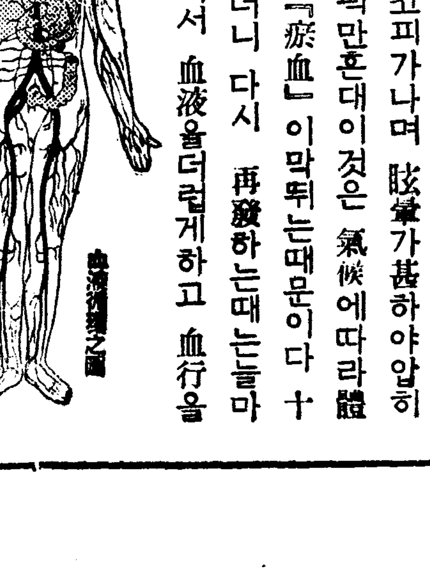
瘀血療法으로無毒하게하면 頭腦도明快하고 튼튼해진다

꼿피는 時節이되면 우리들의 肉身에는 氣運이 돌아耳鳴肩臂痛으로 苦惱를하게되고 氣分도무거워지며 恒常上氣로코피가나며 眩暈가甚하야압히 캄캄하게되는 일이퍽만흔대이것은 氣候에따라體內에싸히고 싸혓던『瘀血』이막뒤는때문이다 十年廿年前에 알든病이 이즌줄만 날엇더니 다시 再發하는때는늘마시는술、담배의毒까지 가한대엇키여서 血液을더럽게하고 血行을妨害하야 所謂古方醫學『瘀血』이되여간혼은 腦動脈을硬變식히는까닭이다



瘀血게리머

오랜病毒에只今評判인 瘀血療法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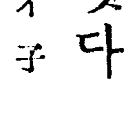
血液循環之圖

『血行의不順은 萬病의因』이라고네전부터 말해나려오는것은 여러분도 임이周知하고잇는바이지만實은 이것이 정말治病의眞義인것이다 그런대 우리들에게잇서 가장 貴重한이血液을더럽게하고 血行을 妨害하게되는것은 젊엇슬때에 一時的過誤로어덧든 病이나엇슬줄만 알엇든病毒과 父母에게서의遺傳毒、或은 날마다 마시는 술담배의毒들인대 이러한것을 古方醫學에서는 『瘀血』이라고하야 이것을 排泄하는대 治病의根本을 삼어거며리나 瘀血法과 破血劑라고 하는 峻下劑로治療하고잇섯든데 모도가 多少의副作用이잇는 缺點이 잇슴을痛感하고 現代醫學의立場에 依한古方醫學의再檢討는 隱密히이것을 體外로排泄血液을淸淨하게하야 血行을整調하며괴로운症狀을 順次로快癒식히는 新療法을 創見하는대 成功을하엿다 어떠케하야서 本療法이治病하는 實績을 들수잇슴가이研究發表한것이 諸位의治病에 多少라도도움이되라면 當研究所로서는 幸甚할일이라고 밋는바이다 더욱 이詳細한것은 先着者百名에限하야 無代送呈하는『瘀血療法』書를一讀하면알수잇다

永年의高血壓이 頭重、耳鳴、肩臂痛으로올든

東京 上澤一勝

……으제四十밧게안되스는대 中風은조헐는것갓엇스나 압흐기만할뿐으로 나를依持하고사라가는집안食口는二十名이나되는大家族의 기둥이되여잇는대…血壓이二三千度常態에서올르고頭重 耳鳴 肩臂痛으로괴로움을 밧아날마다不安한날을 보내게되엿다이것을보고親舊가 フルチ錠을勸告함으로 元來賣藥을 밋지못하는나는 너무勸함에 못이겨먹어보앗든니처음에는 效果를잘모르겟든바 점점 頭重 耳鳴도낫고 血壓도普通常態에갓가우리만큼 나려요즘에는 店舖에나가서熱心으로일을보고잇다……



動悸숨갓붐이낫다(病毒性의) 上氣眩暈가업서젓다

朝鮮 池上アイ子

前略未安하외다 나는昭和十年가을부터배속에 혹가튼것이생기고上氣 眩暈 耳鳴 肩臂痛等症狀이 惹起하야 걸음을 조곰만 걸어도 動悸와숨이 갓버대단한 괴로움을 바더섯다……婦人雜誌에서フルチ錠廣告를읽고 試驗삼아藥局에가서 사다가 먹엇더니 漸漸上氣、眩暈가 업서지고 動悸숨갓붐도 업서저서 언서繼續服用하엿든바 배속에혹가튼것도알지도못하게 감쪽가티 업서젓다(後略)

前東京吉原遊廓病院　小鹿夏明先生創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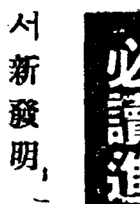
フルチ錠

排毒と順血に

主効: 梅毒 胎毒 血壓亢進症 動脈硬化症 中氣 半身不隨症 心悸亢進症 腺病 喘息 リウマチ 神經痛 腦神經衰弱 ヒステリー 頭痛 常習便秘

藥價　十一日分 三圓　廿二日分 五圓　五十日分 十圓

(全國有名藥店にあります)



古醫學에서新發明

病毒排除 血液循環とふる血療法 (四六判美册子)

必讀 이런症狀잇는분은꼭一讀하시오

▼頭痛、耳鳴肩痛 手足이마르는분 (中風、神經痛)

▼動悸、喘息寢汗 冷汗으로頭悶하는 心臟衰弱人

▼記憶力이減削하고 부끄러움으로苦悶하고熟眠치못하는분 (梅毒、神經衰弱)

必讀進呈

葉書로申込하면即時送呈함

申込所 東京市京橋區西八丁目堀二ノ十 古醫學研究所

電話京橋(56)二五八四番・二六一六番

振替口座東京六五三〇八番

演藝와 娛樂

끗 업는 旅行 헬리암·포웰과 케이·푸란시스의共演

米國俳優組合 宣言發表코 罷業!

賃金引上과 團體交涉權承認要求 會社側委員會는 樂觀

아메리카의 映畵俳優組合(스크린·아크터-스·길드)에서는 最近의 一般的物價騰貴의 勞働攻勢에 따러서 엑스트라俳優賃金引上과 團體交涉權의獲得을爲하야 지난四月七日 뉴-욕에서 主要映畵會社의 푸로듀-서의組織한 委員會에對하야 前記二項外 數個條의要求書를 提出하야 이것의承認을求하엿스나 그後同委員會側의態度가 좀처럼承認할것갓지안코 誠意를보이지안흠으로 드디어 지난四月二十五日에 다음과가튼 宣言을發表하엿다

『우리들의 要求는 어데까지던지 正當함에도 不拘하고 委員會側에서는 何等의誠意를보이지안흔다 일이 이러케될때에는 組合은 組合加入의俳優를 總動員하야 罷業을 하지안흘수업게 되엿다』

同組合은 엑스트라業者三千五百名을加하야 全組合員五千六百名이나되며 各撮影所의 스타-로부터 원서껌까지全部가組合員임으로 萬一組合의 宣言과가티 罷業이 이러난다고하면 아메리가 映畵界未曾有의 大混亂이일어나고야말것이다

여기에 對하야 會社側에서는 幹部들이 連日會議를 거듭하면서도 外面으로는容易한 問題처럼보이고잇다。(뉴-욕發同盟)

짜크페-데 獨逸서製作

짜크페-데는 英京의런던필모社에서『甲冑입은武士』를完成하고 伯林에서의 招請을바더서 伯林도피스社에서 大作品의製作에着手하얏다고한다

題名과 其他는아즉發表치안헛고 이消息도 伯林의報道에지나지안흠으로 자세한것은 알수업다(巴里우비타압스)

라디오

四日(火曜)

◇六時 童謠 一、제비(朴)二、故鄕의봄(金)三、소낙비三兄弟(朴)四、잠자는방아(朴)五、작은별(金)六、수레(金)七、하-모니카(金)八、병정나팔(朴)九、아저씨모자(朴)十、개고리(朴金) 피아노伴奏 朴金朴 景德鳳 嬉蕙陽

◇同六時二十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初等國語講座(八)

◇同七時三〇分 副業講座 養鷄 高橋平太郎 (一)京畿道農務課 權奇東

◇同八時 (東)빠이올린과피아노

(一) 빠이올린獨奏 一、메누엣트…빠하作曲 二、아베마리아…슈-베르트作曲、윌헬미編曲 三、로자문에舞曲…슈-베르트作曲 크라이슬러編曲 四、스파니슈세레나-데…글라주-노프作曲

(二) 피아노獨奏 前奏曲 作品二十八番中에서…쇼팡作曲

빠이올린 黑澤良輝 피아노 막스야노프스키-

◇同八時二五分 執杖歌外 一、執杖歌 二、平壤歌 三、제비가 尹一枝 朴玉姬 蓮

◇同八時五五分 脚本朗讀『家庭爭議解決法』 沈影

第一放送

◇同六時 (城) お話

◇同六時二五分 (東)

◇同七時三〇分 (城)三曲

◇同八時 (東)바이올린

◇同八時二五分 (大)映畵劇

◇同九時 (東) 講演

五日(水曜)

◇午後零時五分 花草四巨里外 一、花草四巨里 二、六字백이 三、홍打鈴 四、개고리打鈴 高飛仙 高桂鸞

◇同一時一五分 趣味講演 端午이야기 徽文高普 金道泰

◇同六時 兒童과先生의時間 一、天日槍(讀本卷七、第二課) 二、瑞竹의林(讀本卷十一、第三課) 淸雲普通學校 四年生 六年生

◇同六時二五分 (東) 英語講座(二의五) A·F토마스

◇同七時三〇分 兒童愛護週間 醫專病院 蘇奎星

◇同八時 歌曲 一、羽調頭擧 二、羽樂 三、環界樂 四、界樂 五、編 朴桃姬 薛命祚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八時三〇分 回心曲 趙士元 王三得

◇同八時五五分 (東) 管絃樂(合唱付)—新交響樂團定期演奏會(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 交響曲 第九番 D短調……베-토-벤作曲 第四樂章 프러스트 新交響樂團 指揮 요-제프·로-젠·슈톡크

第一放送

◇午後〇時〇五分 (城) 室內樂

◇同六時 (東) 童話劇

◇同六時二五分 (城)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同

◇同七時五〇分 (城) 詩吟

◇同八時 (大) 講談

◇同八時二五分 (東) 라듸오風景

◇同八時五五分 (東) 管絃樂

六日(木曜)

◇午後〇時五分 木曜콘서-트 伴 薰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젓먹이와어린이의發育에對하야 李先根

◇同六時 童謠齊唱과獨唱 一、齊唱 봄소식 二、同뻐꾹 가락닙 三、獨唱 집신짝 四、齊唱개고리 五、해비츤쨍쨍 六、獨唱가을밤 七、齊唱하-모니카 八、同봄다리 九、獨唱바다가에서 十、齊唱수레 花園學院兒童 피아노伴奏 蔡賢順 獨唱 李貞淑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經典解說 李明世

⊙어린이와家庭의저녁⊙

◇同七時卅分 라듸오스켓취『小學生일記』 참새 학교 指導 林鴻恩

◇同七時五十五分 獨唱 一、불어라봄바람…스콧트랜드民謠 二、봄이오니…스필만作曲 三、들장미…웨-버-作曲 四、언제나도라오려나…풀로토우作曲 五、산타루치아…伊太利民謠 六、故鄕생각…도나-作曲 鄭致煥 피아노伴奏 崔奉鎭

◇同八時十五分 흉내

◇同八時二五分 野談 四柱밧고決心 張明浩 申鼎言

◇同八時五〇分 大笒獨奏 새타령 朴鍾基 鼓手 池龍九

◇同九時 婦人講座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 木曜콘서트

◇同六時 (東) 歌物語

◇同六時二五分 (東) 講演

◇同七時三〇分 (仙)

◇同八時 (東) 三曲

◇同八時二〇分 (東) 歌謠曲

◇同八時四〇分 (大) 俚謠

◇同八時五五分 (東) 義太夫

檢閱에잘걸리는 루빗치의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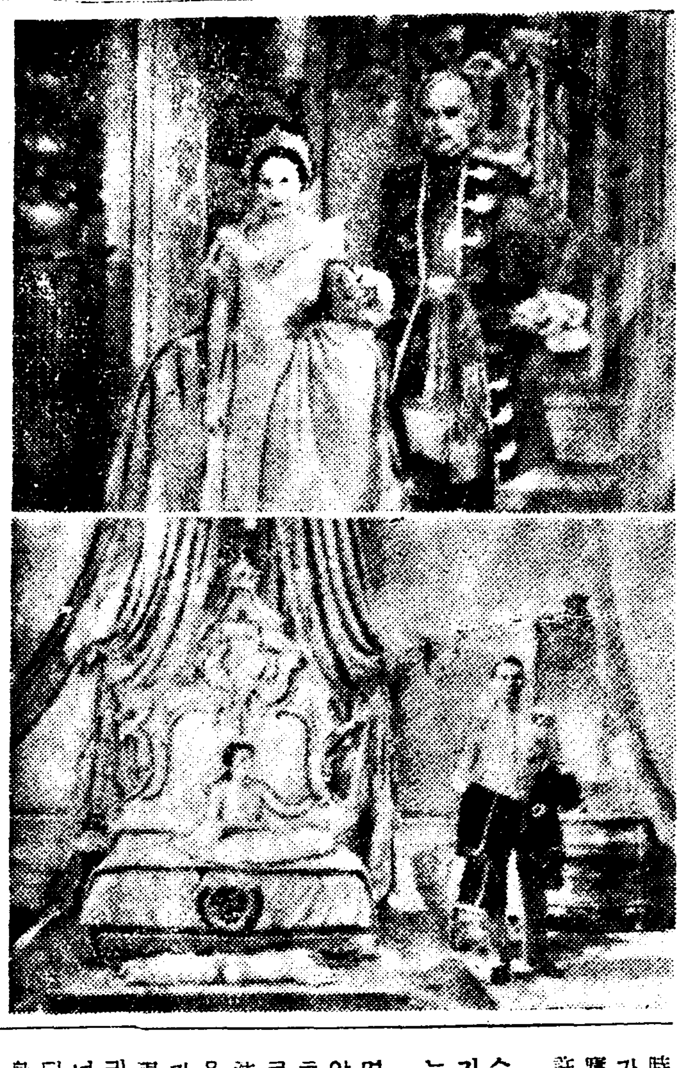
"檢閱要視察"NO"원"

日本에 輸入되는 映畵가운데서檢閱에問題를잘이르키기는 에른스트·루빗치의 作品이다。그러므로 映畵檢閱當局의 要視察人物의名簿에는 르빗치가 붉은線으로 아조핑장히 그려노코 注意와 警戒의的이되여 잇슬것이다。

映畵의歷史가잇는 以來 르빗치처럼 檢閱官을울리고 苦生시킨사람은 업슬것이다。루빗치의作品으로 이곳에서 上映禁止를當하고 도라간것을 지면 不知其數다 그러므로 지금도 業者들은 루빗치의作品에限하야 그內容보다도 爲先作者인 르빗치의일홈과함끠 檢閱關係를먼저 생각하게되는것이다。그가取하는題材는 언제던지 王宮이나 그러치안흐면 强烈한 에로티시즘이다 出世作이라고할수잇는『카르멘』에서는 主演한 도-라·네그리가 겨드랑미테 털을 그냥드러내고 잇섯스니 이로하야금 네그리가 出世한것도 우수운일이다。그다음『山고양이 루시카』가그러하엿고『寵姬스므룽』어그러하엿스며 그의大作中의하나인『팻숀』에서는 佛蘭西革命에 取題한것으로써 포-라네그리가 粉裝한 마담·듀바리에-의목이 끈허저서그냥群衆속에 떨저 지는것이 라스트·씬이다。

『데셉손』은 앙·보-렌이 刑場에끌어니간다。이두個의大作을지금의 情勢로는 到底히輸入될수업는作品들이다 이와가튼 題目으로 만드러전도로레스·델리오 主演의마담쥬바리-와노-마달마취主演의 그것이 모다再昨年橫濱稅關에서 그냥 쫏겨가고말엇다。『데셉손』과가튼 題材의作品『헨리-八世의私生活』도 이와 가티上陸도 해보지못하고쫏겨갓다。『러브·파-레드』는 지금으로 當히上映되고 잇스나 輸入當時에는 一年間이나 檢閱保가되엿다가 結局 맥드날드의 寢室의 場面이 컷트를當하고 許可가되엿다。이映畵의 第一生命이라고할수잇는 『드림·러브』가 업서지기는햇스나 엇더케 쫏겨가지는안헛다。

루빗치가 第一要視察格이라면 檢閱五人男으로 일흠잇는 알렉산더 골다인게·베·파프스트V·토르얀스키- 라오스 비로-쪼셉·촌·스탄벅은 모다要注意人物의 級으로 필모의悲劇을 만드러내는 사람들이다。이가운데 세사람이 런던필모의 現役이라는것을 생각할때 『헨리-八世』가 禁止되고 베르그너-의『카테리나女王』이 上陸되지못하얏스며 『돈판』이 滿身瘡으로 컷트를 當한것이 無理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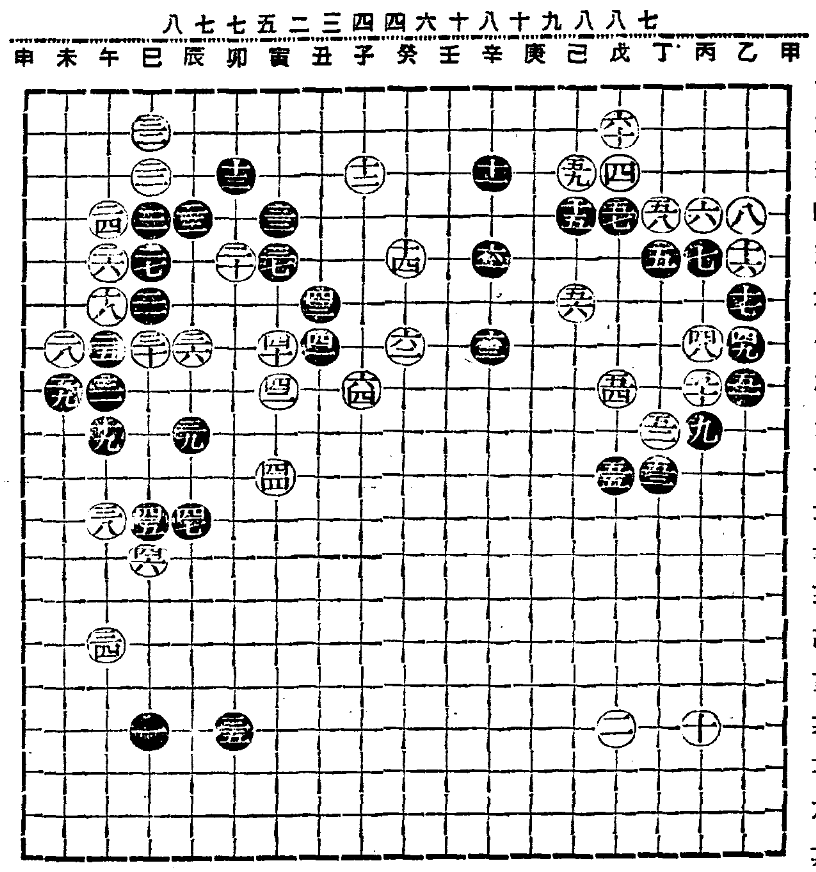


(사진은 『카테리나女王』 下는 런브파레드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4)

(白)盧史楚 (黑)蔡極文

●57 乙의七　○58 丙의八　●59 乙의八　○60 丁의九　●61 丁의十　○62 戊의八　●63 戊의十　○64 己의六　●65 戊의四　○66 丁의四　●67 己의三　○68 戊의二　●69 辛의五　○70 癸의七　●71 辛의七　○72 子의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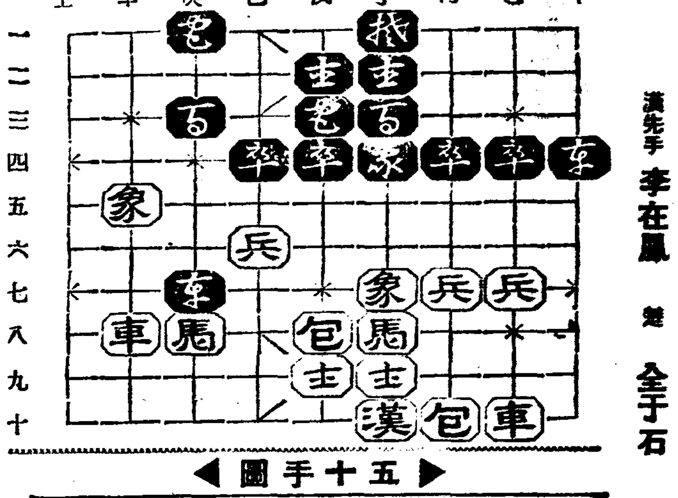
丁潭雲觀戰談

白五〇(丙八)은 五六、黑己五、白辛六等으로 中央取勢가 [illegible]이다 黑六一(辛五)六三(辛七)은 强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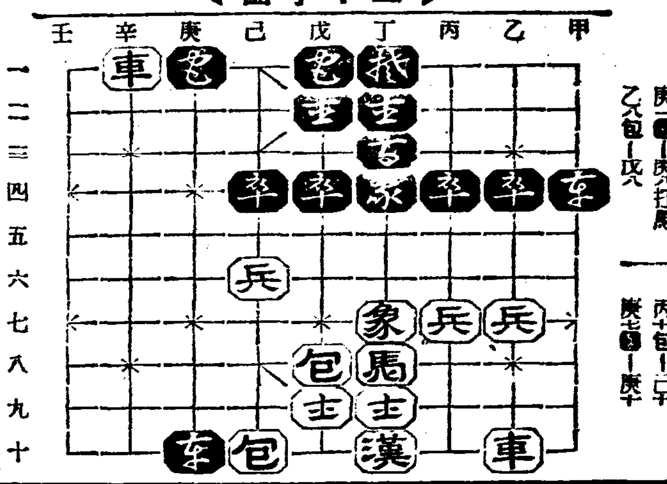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五)

漢先手 李在鳳 楚 全于石

◀四十手圖▶



◀五十手圖▶



戊八包—乙八 庚三●—辛三打象 辛八車—辛五打馬 庚一●—庚八打馬 乙八包—戊八

庚八●—庚一 辛一車—辛一 戊三●—戊一 丙十包—己十 庚七●—庚十

이商標에注意

森永으로큰애는 모다健康兒!

森永(모리나가)ミルク(미루크)

森永밀크는어린애를 健康히 두실〈살씨게하는 新鮮한榮養이特히豐富하야消化가잘되는 젓임니다

森永製品朝鮮販賣株式會社 M-10

キッコーマン醬油 (깃고-만)

目に青葉 山ほとゝぎす 初がつを

깃고-만이라고 말만들어도初夏의新鮮한味覺이 勇躍한다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12—E—3

陰萎·勃起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五大博士推奬

最新發明局〇塗布藥 セーブレビン(세부레빈)

●本劑는、芳香性크림狀으로 局〇에少量씩塗布함으로써 快爽한流血을惹起하야 性호르몬의分泌를促進하고 勃起力을强大하게하야 多大한快感을 興奮하고 生殖機能을 急速히 强精케한다。奏効能을 寶한最新發明藥이다。

適應症 陰萎·勃起不足 性感增進·生殖器短小 不感症·分泌減少

(男女共用) 一回一瓦程度塗布 (價格) 二〇瓦入 一圓五十錢 五〇瓦入 一圓五十錢 百瓦入 四圓八十錢 携帶用十本入 三圓七十錢 送料四十二錢

發賣元 東京市青山二丁目電停前 合資會社 天醫堂 振替東京一九二四番

●說明書試驗報告無代進呈

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新井藥房 京城本町二丁目 木村藥房 平壤大和町 森田藥房 新京三笠町 宮崎藥房 大連浪速町 日本賣藥社 釜山辨天町一丁目 大黑藥房 釜山辨天町二丁目 南海堂 藤田藥房

東洋劇場

(晝夜二回) 劇團靑春座 全員熱演

▲待望의傑作繼續上演▼

李雲芳作 悲劇『放浪者』三幕

放浪은人生의詩다! 그러나放浪者는? 사랑을爲하야家庭을事業을親舊를모두버리고永遠한放浪의길을밟게된本篇主人公의生涯는詩냐? 墮落이냐? 勿失好機하시고括目鑑賞하시라

鶴山作 喜劇 貞操와劉玄德 一幕二場

林仙圭作 次週特別豫告 悲劇 내가사랑하는사람들 二幕七場

南宮春案 喜劇 二等寢臺車 六景

團成社

五月二日부터特別興行 料金六〇錢、四〇錢均一

▲每日三回十時半、一時半、六時半

▲짜쓰번에고장이메리카에서온黑人歌手 (포리도루레코-드專屬歌手) 포파이君一座에 스레-지쇼-

漫畵로서너무나有名한포파이君이 짜쓰와춤을充分히여러분께들여드립니다 (約一時間卅分)

▲獨우파社超特作映畵 要한슈도라우스名曲、名作의映畵化

칼·하-트監督 집시男爵 아돌푸·외-르부륫그 主演

▲유나이데드超特作映畵 名匠킹·비-다-不朽의名作 世界的女流映畵作家 푸라시스·마리온女史脚色

시나라 로날드·콜맨 케이·푸랜시스 主演

桃花劇場 電(龍)一三三三番

◇五月四日부터 特別興行 每日晝夜二回上映 낫一時半 밤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猛獸劇 잔글의女王 監督—윌리암에이氏 主演(도로시라무아孃 레이미란드氏

◇米國J·H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爆笑劇 키-톤스페인婚亂 六卷 監督…아도리안브륜넬氏 主演…바스타-키-톤氏

◇마키노超特作오-르·토-키版! 現代劇 青春五人男 前篇 監督 牧野六氏 主演 田村邦男氏月澄江孃

新富座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五月四日부터 特別興行 土曜·日曜·祭祀日은晝夜二回 一回十二時 二回三時半夜映 一回七時半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와너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拳鬪大活劇 뽐내라카크니 全八卷 監督…로이드·베-콘氏 主演…쩨-쓰·캬크니氏 팟트·오브라이엔氏

◇와너내쇼날超特作全發聲日本版 爆笑劇 부라운써커-쓰 全八卷 監督…레이·엔라이트氏 主演…조에-·부라운氏 助演…도로시리·빠제스氏

◇마키노超特作오-르·토-키版 現代劇 青春五人男 監督…牧野六氏 主演(田村邦男氏 月澄江孃

晝夜三回 三日·四日·兩日限り 大人五〇錢、學生、小人三〇錢

若草劇

後篇"秋ふたたび"

◀良人の貞操 有料試寫會

特別サービス 同時併映

◀平原女兒

◀大毎ニュース

▲パ社六大作ニュース

光武劇場 往十里町

⊙五月二日부터三日間公開 晝夜二回上映 낫一時 밤八時始映 大衆料金十錢

▲世界的映畵史上不朽의帝王 ▲永劫不滅의一大金字塔 名匠D、W、그리피스氏監督作品 全發聲日本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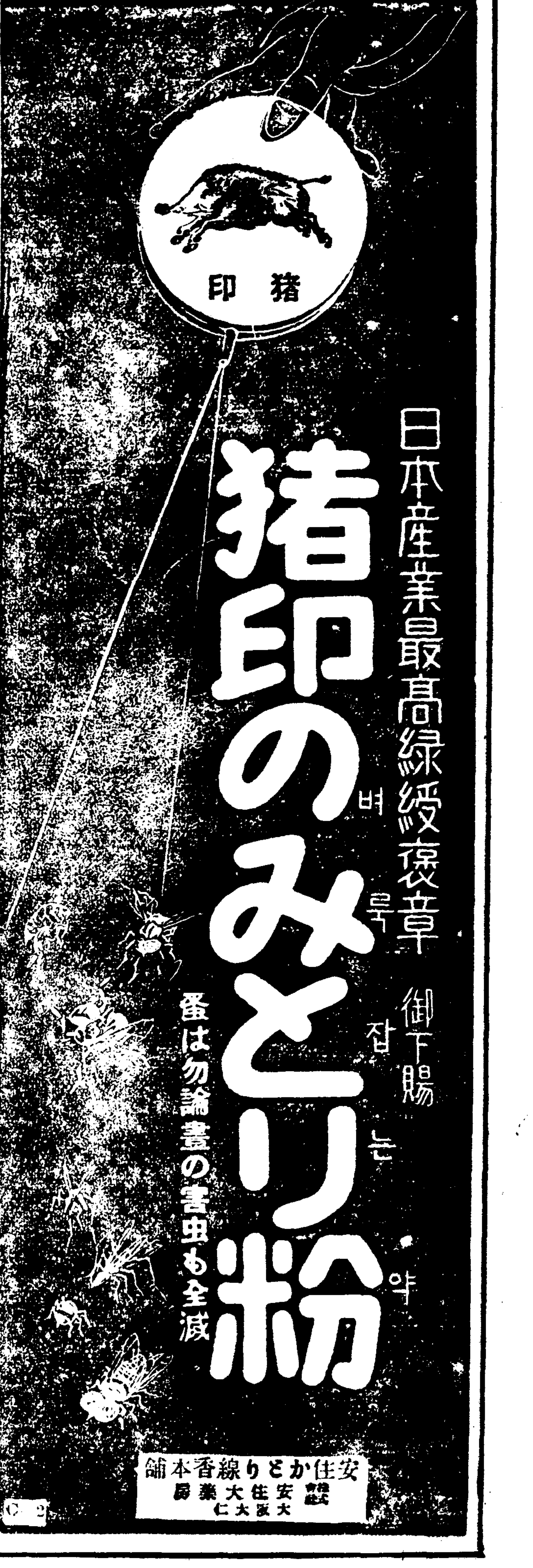
珠玉名篇 東道 十一卷 리리안、깃쉬 리차드、바셀메스 主演

製作會社에따러서東道가두가지잇스나監督主演者에잇서가수두가지類가特異합니다아즉도記憶에서사라지지안은昔日의東道를그대로그리피스自監修의發聲化한것으로새로히封切되는映畵

▲마키노푸로덕순特作映畵 現代後篇活劇 學生五人男

一、波濤篇 二、爭鬪篇上映 東郷久義 杉狂兒 主演

▲實寫 日豪水泳競技大會一篇



染病患者百十五名에 三十四名이死亡!

猩紅熱發生卅名에死者八名始初로(一月以後四月까지)

疫魔에게脅威받는關門瀛州

【釜山】전염병도시라는 별명까지가진 부산부에는 당국의필사적방역에도불구코 각종전염병이창궐하야 금년일월부터 사월말까지에 발생환자가 일백십오명이고 그중사망한환자가 이십사명 현재신음하고잇는환자가 삼십칠명이라하며 작년동기에비교하면 발생에잇서서는 이십명의증가이고 사망에잇서서도 다섯명의증가이며 현재도 아홉명의증가이라한다 그리고 그병명별로본 발생및사망자는 다음과갓다

病名	發生	死亡	現在
腸窒扶斯	二九	六	一二
赤痢	八	四	五
猩紅熱	三〇	八	一〇
치푸테리아	一四	二	二
痘瘡	三〇	四	七
流行性腦	四	〇	一

西朝鮮三道의 郵便所長會議

【平壤】평양체신분장국관내 서조선삼도의 우편소장회의는 십오륙량일간 평양신공회당(新公會堂)에서 오전열시부터 오후네시까지 개회하기로되엿는데 참가할우편소장은 백칠십오명의다수로 다음과가튼 요항과 의견의 개진이잇슬터이라한다

◇諮問事項

一、物資購買에依하는 經費節約에關한 考慮하라

一、通信手에對한 恩給制度를制定하라

一、無料診斷의 巡廻를 山間에 對해서 速히實施하라

一、郵便所名을 局名으로 改稱토록하라

철다친小作爭議

黃海道內서三個月間에114件이發生해서

昨年同期보담二割增加

【海州】황해도지방에는 금년에드러서 소작권이동과 소작료인상등으로 말미암아소작쟁의가날이갈수록 격증하고잇다 즉황해도농무과소작계(小作係)집계에의하면 금년일월부터 지난사월말까지 삼개월동안에 황해도내에서 발생한소작쟁의건수는 일백사십삼건으로 작년동기에 비하면 약이할인이십건의 증가를뵈이고잇다 이 일백사십삼건중에 해결된것은 권해(勸解)성립이 이십삼건 재판소의 조정에의한 조정(調停)성립이다섯건 기타십이건등으로 합계사십건밧게안되고백여건의 대부분은 아직미해결로서 해결수속중에잇는데 이쟁의의원인은 소작권이동이 구할을 차지하고잇고 소작료인상이 일할가량이라한다 아직지회에 노력하고잇스나 아직진회도지안코 연소중에잇다한다

洪城公普創立 三十週年記念

【洪城】홍성공립보통학교창립삼십주년기념식은 예정과가티 지난일일오전열시에 동교강당안에서 거행케된바 관민유지이백여명의참렬로 자못성황을이루엇고 오후한시에는 전교원(全敎員)녀선생의 실수두년근속표창식을 동교후원회장 리하영(李廈永)씨의사회로 계속거행된바 기념품으로 금속와권시계한개를 증정하고 오후세시경에 폐회하엿다한다

엡웟靑年會創立

【古場】운산군고장(雲山郡古場)기독교조선감리회고장교회(基督敎朝鮮監理會古場敎會)에서는 기미(己未)에 엡웟청년회가 창립되여 삼십년간에 해산되고말엇든바 만십육년인 지난사월십일오후구시에 교회강당에서 탁사홍(卓士弘)씨사회하에 다시창립하고 아래와가튼 역원선거를하엿다한나

會長卓士弘 副會長白雲凌 總務崔致運 會計崔炳奎 書記申允弘 宗敎部長趙長明 社會部長李華伯 少年部長康道傳 以下略

觀察所開所式 來八日公會堂에서

【新義州】신의주보호관찰소(新義州保護觀察所)개소식은 오는팔일오전열시반부터 공회당(公會堂)에서 거행하기로 되엿는데 당일은경성으로부터 증영(增永)평양복심법원검사장등 다수참석하리라한다

明信弘牧師의 米國留學準備

【眞池洞】명신홍군 진지동(眞池洞)장로교회목사 명신홍(明信弘)씨는 유망한 청년목사로 조선에서 교회방면으로 중요한 일잇게활동하라면 무엇보다도 압어야하겟다하야 신학을연구키위하야 동교회의교역을 사면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류학하기로 하고 방금준비중이라한다

江西支局主催 觀光團員出發 三日午前에

【江西】본보강서지국주최인묘향산동룡굴(妙香山蛟龍窟)관광단일행이십오명은 지난삼일 예정대로 기양역발오전구시십분발 렬차로 출발하엿다한다

開原普通學校의 第六回學父兄會

【開原】개원보통학교에서는 지난일일오후한시 제륙회부형회를 동교강당내에서 개최하고 의장 박락승(朴洛承)씨개회사와 소야(小野)교장의인사가 끗난뒤에 동교후원회 홍병화(洪炳化)씨의 경과보고가잇섯다 결의사항으로 드러가 역원선거와십이년도 예산편성을 만당일치로 가결하고 오후오시에 폐회하얏다 선거된역원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나

會長鄭晃稜 副會長朴洛承 幹事李尙植 洪炳化 崔成武 許賢貝 崔承寶 金壽鎔 金尙昇 朴基寶 金正浩 金寅錫 李斗新 桂用國 張明根

大田

▲時日 五月八、九兩日

▲場所 大田木尺運動場

全朝鮮男女 自轉車競技會

◇主催 大田第一普校同窓會

◇後援 朝鮮日報社大田支局

載寧

▲時日 五月八、九兩日(雨天順延)

▲場所 載寧運動場

全朝鮮男女 自轉車競技會

◇主催 載寧自轉車店本店 載寧輪業社

◇後援 朝鮮日報載寧支局

定州

全朝鮮鞦韆大會

▲時日 五月七、八、三日間

▲場所 新安學校運動場

◇主催 定州體育會

◇後援 朝鮮日報定州支局

信川

全朝鮮脚戲大會

▲時日 五月十五、六、七日三日間

▲場所 信川溫泉運動場

◇主催 信川溫泉市民一同

◇後援 朝鮮日報信川支局

돈三圓안갑는다고 債務者에게暴行

父子共謀로毆打後結縛하야 鴨江에投入하려다發覺

【安東縣】도사원차즈려 부자끼리갓다가 돈아니준다고 채무자를구타하고 그룩결박하여 압록강에던지려고 갓다가 발각된사실이잇다 지난일일오후십일시경 캄캄한밤중에 안동현제사구마자구(安東縣第四區馬子溝) 장해수(張海水)(五〇)의 집에 초산군초산면(三道溝區柳林村三東洞)에 사는백봉선(白鳳善)(五〇)과 그아들백룡서(白龍瑞)(二〇)량명이전기장을 차자가서 지난삼월에 대부한돈 삼원을 반환하라고강청하엿는바 장은방금 돈이업다고 대답하매 백은아니된다고 서로 언쟁하다가 싸홈이되자백봉서부자는 장을잡으로 구타하여비사의 상태에 잇는것을보고 『장이죽으면 살인죄를면치못하리라는것을 각오하고 죄를감추기위하여 장을강물에 던저버리려고 장을다시결박한후 압록강에 가져다가 던지려고 부자가 장을메고가다가 도중에서 안동서원에게 발각체포되여 엄중취조를밧는중 전기사실을 자백하엿다한다

獵銃을窃取潛跡

監督毆打한鑛夫 犯人搜索隊갈팡질팡

【舍人】평남대동군 룡악면(龍岳面)상차리(上次里)청룡광산(靑龍鑛山)에서는 지난사월 이십오일밤중에 동광산감독(監督)정오복송(井奧福松)의 소유렵총(獵銃)오련발 한나와 탄환이십여발을 도난당하야 대소동을 일으키고 잇는바 이제들은바에 의하면 전기 정오감독은 이십오일아침 인부들과 어떠케 싸움이되여 인부 리창도(李昌道)(二三)에게 마저서 면부에 상처까지 나게되자 진단고소를 하리라느니 총으로쏘다니니 매우떠들엇섯는데 그날밤 전기리창도는 정오감독의 무기라는 전기렵총과탄환까지 교묘히 훔쳐가지고 어대로인지 종적을감추고 말엇다한다 이급보를받은 대동서에서는 순천、평원등 각경찰의 응원을어더가지고 이래십여일동안이나 맹수사를 하엿스나 지난삼일까지도 아무단서조차못어든채로 수사대는 도라온모양이라는데 혹시 어떤관계이물의 계획이나아닌가? 또는 언제어대서 큰일을 저질르나 안할가?하야 경찰들의 긴장은 자못 잇다는바 이말을 드른 근일대의 주민중에도 [illegible] 이십은 비상 [illegible] 가고잇는중이라한다

南石穴脚戲戰 無期延期키로

【永興】기보=함남영흥군남석혈금산(咸南永興郡南石穴金山)주최 본보영흥지국(本報永興支局)후원의 관북각희대회(關北脚戲大會)는 사정에의하야 무기연기하기로되엿다한다

地方人事

▲李選鎬氏(前德源郡守)辭任人事次本社元山支局來訪

▲李命求氏(神恩公立普通學校訓導)新任人事次 本報神恩支局來訪

第十三回全朝鮮蹴球戰 大會順序를決定

【平壤】관서체육회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륙, 칠, 팔의 삼일간 평양부내 공설운동장(公設運動場)에서 성대히개최될제십삼회전조선축구대회(第十三回全朝鮮蹴球大會)는 만반준비가 되여배화와신록의 향기가 높흔관롱 기자림운동속에서 화성을 울리게되엿다 삼일오후 여섯시부터 회순서를 다음과가티 결정하야 발표하엿다

삼백오십여명의 용사들이 모교와 자기단체의 명예를두 개에 걸머지고 열사의우에 땀을 흘리면서 씩씩하게 싸울동양호박의 장쾌절한싸홈은 구도평양의 인기를 총집중하고남음이 잇슬것이다

특일오전아홉시부터는참가선수삼백오십여명의 장엄한입장식이잇슨후대회장의 주장연순의 대회기 게양식(大會旗揭揚式)으로 대회장 조만식(曺晩植)씨의 개회사 우승기반환 선서문낭독 본보와 심판부의 주의사가끗난 다음 실업단(實業團)문화건축(文化建築)대목공조합(大木工組合)의 제일회전으로부터 장관한"께임"의막은 열리기로되엿다 제일일의 경기순서와 그리고 시간의배정은 다음과가티결정되엿다한다

◇第一日

順次		相對	主審	時間
1	實業團	文化 木工	金永燦	[illegible]
2	實業團	東西 久田	韓龍浩	[illegible]
3	實業團	新里 兵友	金元福	[illegible]
4	靑年團	OB 望日	金成煥	[illegible]
5	靑年團	平原 高麗	朴永哲	[illegible]
6	實業團	南浦 木工	朴仁楠	[illegible]

第二日 準決勝戰

		相對	主審	時間
1	實業團	東西久山勝 新里兵友勝	金永煥	[illegible]
2	小學	金人 群林	朴仁楠	[illegible]
3	小學	信興 新町	張炳主	[illegible]
4	中學	崇高 明新	金光信	[illegible]
5	中學	光成 光高	朴永哲	[illegible]
6	靑年	OB 勝 群令	金元福	[illegible]
	靑年	平原高麗勝 SB	康泰圩	[illegible]

◇第三日 決勝戰

		主審
1	小學團	金元福
2	實業團	金永燦
3	專門團	朴永哲
4	中學團	金光信
5	靑年團	康泰圩

春窮으로困境에빠진 窮民에糧米貸與

延白郡道村面에서

【海州】연백군도촌면(延白郡道村面)일대에 잇는 궁민다수는 춘궁기를 당하야 참담한 생활을 하고잇는터인데 동도촌면당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에비추어 지난사월이십구일 그부락에 산재한 궁민들에게 쌀(米)일백삼십석을 대부하엿는데 대부석수를 각리별로보면 다음과갓다

▲琴山里二十六石▲鬼月里十八石▲智山里三十三石▲梧山里五石▲桃山里十八石▲新月里十八石▲無限里十三石▲馬泉里七斗五石

忠北兒童週間 優良兒童表彰

【淸州】충북도에서는 례년과가티 오는오월일일부터 동팔일까지를 아동주간으로 정하고 제이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잇는터이다 따라서 도당국에서는 영동, 청주(永同、淸州)량군에한하야 만팔세미만의 우량아동을 표창하기로되엿다는바 청주는 륙칠일에 영동은 삼사량일에 각각 우량아동의 심사를 하기로되엿다고한다

學院擴張費로 一金千圓喜捨

【載寧】재녕군남호면재천리(南湖面財泉里)에사는 김윤섭(金允燮)씨는 가튼동리에잇는 재천학원을위하야 천원금을 희사한기쁜 뉴―쓰가잇다 즉 동학원은 무산아동과 과

大豆一手販賣制 穀物界에大衝動

南浦에서도反對烽火를들어 ―問題俄然重大化―

【鎭南浦】금번금융조합련합회(金融組合聯合會)의 계획인평안북도압록강(鴨綠江)상류에서생산되는 대두(大豆)판매권을 삼정(三井物産)이 일수판매케됨에 대하여는 평북지방상인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잇슬뿐아니라 각지곡물계에 큰 암영을주게되여 문제는 아연중대화하고잇슴으로 지난일일마루나협회(丸ナ協會)본부에서도 긴급평의원회를 열고 대책을강구한결과 일수판매제를 변경하여 경쟁입찰제로 하여달라고 각요로에진정키 결정한후 즉시 전문으로 진정문을 발하엿다는바그결과는 크게주목된다고한다

豆滿江上流에山火 方今猛延燒中

【羅南】지난사월이십구일 오후한시부터 두만강지류 서두수(西頭水)상류 오십리되는 지점 삼하동(三下洞)에 산화(山火)가발생하야 렬풍에 몰려가며 상시간에 사십여정보를 소실하고마럿다 부락민사백여명은 총출동하야

알뜰한그동생

庶兄嫂侮辱햇다고 隣人을毆打致死!

【釜山】지난달 이십구일에 경남밀양군하남면 귀소리(密陽郡下南面貴召里)농업 리원익(李元翊)(二二)이가 동면수산리(守山里)어시장(魚市場)에서 동군부안면 연상리(富安面淵上里)사는 농업 박성회(朴聖會)(三五)를 지게작대기로 난타하야 중상을 입히엿든바 그후경과가 조치못하야 지난일일 오후열시경에 사망하얏는데 그소문을드른 전기리원익은 어데로도망하얏다는데 차홍의원인은 자기친형 리원백(李元白)의첩 박모(朴某)(三〇)를 십여일전에 전기피해자가 모욕한것을 분개한남어지에 그복수로 그가티 구타한것이라한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엄탐중이라한다

測量學校設立

【安東縣】만주사변후 빈곤한동포들의손으로 개척되여가는데 측량기수가 부족되여 곤난으로잇는바 안동유지동포들은 무직청년들을 취직을하고저하나 기술이문제되여 못취직함을개탄하고 측량학교를 설립코저 현안동에 [illegible] 만주가에일만측량학교를 열고 지난오월일일부터 개교하엿다는데 만주국인과 상대가만흔관계로 만주국어까지 겸하여가라치고저계획중이라한다

新溪郡下에山火

寶富洞에서十餘町步를태우고 華蓋山으로猛延燒中

【海州】황해도산(山)으로부터강원도산으로 이동한 큰 산화(山火)사건―지난오월이일 오후다섯시경신계군고면성남리 보부동(新溪郡古面城南里寶富洞)서편십오정쯤되는 산림가운데서 불이붓기시작하야 그부근산림을 태워버리고 맹렬히타는불은 동편에달려잇는 강원도화개산(華蓋山)으로 올머가서 삼일오후다섯시까지 타고잇는중이다 그리하야 신계소방대(新溪消防隊)가 현장에 출동하야 진화에 노력중인데 원인급손해는 방금 경찰에서 조사중으로 아직판명되지안헛스나 손해액은 수만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고한다

女工의父兄50名이 工場主와亂鬪

待遇改善問題로發端

大邱愛隣會授産工場의不祥事

【大邱】지난이일오후여덟시반쯤에 대구애린회관(大邱愛隣會館)에서는 그관내수산장(授産場)자수부(刺繡部)녀직공들의 부형약십여명이 쇄도하야 관내선생과 부형간에 일대난투극이 버러젓섯다 즉달성군수성면대명동(達城郡壽城面大明洞)이천륙백사십오번지에 살고잇는 안원곤(安元坤)의 큰딸 애기(阿只)(二〇)는 대구애린회관자수부의 녀직공인바 한달동안의 품삯으로 겨우 오십사전을 바다가지고 돌아와 불합할수업서 그의부모에게 억울한사정을 일일히 말하엿다 그래서 그의실부되는 안원곤이가 회관에 달려가서 자수부선생에게 질문할지음에 그의처들이 이소문을듯고 회관에달여와서 선생과 정면충돌이 버려지자 안애기의부형과 사정이독가튼 부근의부형들도 보를 만난것처럼 ㅇ십여명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기세를 올려 난투를하엿다 이와가티 사회사업단체인 애린회와 그의직공들의 부형간에 일대추태를연출한 원인을 보면 즉대구부내에잇서 개인영리적인 고교자수공장(高橋刺繡工場)에서는 녀직공들의한달품삯이 최고 십오원으로부터 최하삼원까지 지출한 례가잇슴에도 불구하고 이와정반대로추민의 보호구제사업(保護救濟事業)을 자칭하고잇는 대구애린회에서는 한달동안의 품삯을 최고칠원으로부터 하십이전까지 지출하엿다한다 그중에 최고칠원정도의 품삭을받는 녀직공은 불과수명에지나지안코 그의 대부분은 삼원으로부터 십이전까지라고 한다 그리고 더욱놀랄만한것은 품삯도 전액중에서 원료품등의 갑슬게산하야 공제하고 그잔액만지불한다는데 이로말미암아 일반부민간에서는 애린회의 목적인『유아보호』『향동보호』『실업보호』『교화사업』등의 근본정신이어데잇는지 다시금의심하는동시 지도자들은 주로 장로교목사 혹은신도로써 종교사업을 표방하고잇느니만큼 일반신도들사이에도 비난이적지안타고한다

"日賃五六十錢은 한달신갑도안된다"

某職工父兄의呼訴

『글세요 한달동안아침여섯시에가서 밤여섯시까지 죽도록 일을하고 한달품삭이 불과오륙십전이란것은 어데고무신갑이나됩니까? 나의딸은 그공장에다니는데 발서석달채나되는데 이달대회하고 참아나왓습니다 나이렇만그런줄 알고 흥은내얼 기술이 부족하야、 그런줄만 알엇더니 그날밤실 되고보니전부가 그럿슴되다이런불합리한일이 어데잇겟습니까? 그러고 감독자라고하는 사람이 아해들 상시로 구타까지 한다하니 더기가 막히다』

"그만衝突은 每月依例事"

館主李氏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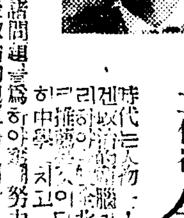
『이러한일은 매월한두건은 늘잇는문제올시다 부형들이 넘우나 무식하니까 참작정이올시다 직공팔십명중에 근삼십명은 계속하야 작업중입니다 방금 도지사에게 일만오천원의 기부허가를 신청해노코잇는데 인가가만되면 수산장을 더욱 대확장하야 적어도 매달수입이 십오원는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南朝鮮諸名勝地 四日間探勝完了

[illegible]協團一路無事歸着

【固城】조선의 문화(文化)와예술(藝術)을 전세계에 자랑하는 경주를 중심삼아 남조선유수한 명승지를 탐승하기위하야 본보고성지국에서는 탐승단을 조직하야 지난이십칠일 오전 [illegible] 한바와가티 [illegible] 목적지를 전부탐승하고 지난삼십일에 무사히 귀성하야 고성 영생관(永生館)에서 피로연을 개최하고 단원일동은 장시간 탐승의감상담을교환하고 동십시에 해산하엿는데 탐승지는 아래와가탓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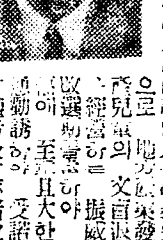
釜山海雲臺、東萊梵魚寺、慶州佛國寺、陝川海印寺、梁山通度寺、居昌搜勝臺、咸陽上林、南原廣寒樓 求禮華嚴寺



全北道會議員推薦

立候補 金富坤君

時代는人物을! 政界는政客을! 政客에게는 政治的頭腦가! 明哲한金富坤君! [illegible] 北道議員選擧에最適任者 [illegible]



京畿道會議員候補者

振威郡 李敏恒君

(寫眞은 李敏恒氏)

[illegible]

振威郡有權者有志一同 白

推薦狀

黃海道會議員

立候補 金亨喆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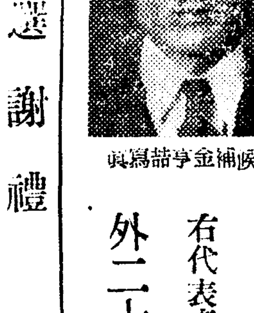
右最適任者로推薦하나이다

昭和十二年四月 日

鳳山郡各面有志一同

右代表者 張龍鎭

外二十九名



立候補金亨喆寫眞

當選謝禮

今般辰橋金融組合役員改選에際하야本人等이總代及有志諸賢의深厚하신同情으로當選의榮譽를被하얏삽기玆에感謝의意를表하나이다

昭和十二年四月二十日

監事 鄭
監事 金
評議員 鄭
評議員 鄭
評議員 李
評議員 陳
評議員 鄭
評議員 鄭

五月五日부터 二十五日까지

全店商品一割引提供

特價品及자투리는市價의半額

或은 三分一갑 每日個數有限

開業五週年紀念割引大賣出

京城鍾路

綢緞店 九鼎

P・C・L・入江ブロユニツト作・吉屋信子原作・山本嘉次郎監督

入江たか子・高田稔・千葉早智子・丸山定夫共演

長人の貞操

後篇『秋ふたゝび』此處に愈々登場

愈々五日 封切

大人 五〇錢 小學生 三〇錢

若草劇

P・C・L・獨占映畫化! 東日・大毎・連載

ワーナー特作 ロイド・ベイコン監督

スタアと選手

經濟朝鮮說

"高物價"抑制 ②

日本은總選擧結果가 政、民二大政黨勝利에 歸하야 林內閣이 難關에 逢着되던지 또는 政黨의反擊과 軍部의 어떤 勢力에 依하야 林內閣이 이때를 되던에 財界는 그것에依하야 큰衝動을 바들것가튼 態度한것이아니오 貿易、產業이 發展되는中이며 膨大豫算도이미 通過하얏슬뿐아니라 輸入關係의 法案들이 通過되엇스니 걱정할것이업다는것이常識論이나 藏相의方針은 物價騰貴를 調整하야 物價騰貴를 期하고저하야 國際的原因에依한 物價騰貴는 어찌할수업드래도 國內的原因에依한것은 極力으로 抑制코저內閣에 物價對策委員會를 設置하게된것이다。勿論이委員會가 生기드래도 반드시 人爲的手段에依하지 안는다하며 投機에依한物價騰貴를 抑制한다고 내세우고잇는바 果然어떤한것이나올지 重視되는일이다。

× 主로 英米物價高의 影響을受하야 騰貴되던日本의 物價도 米大統領의 物價修正과 日本의 物價抑制로 訂正이可能한것으로 昨夏以來急騰步로物價는 高價向이던次도 抑制라고보이며 戰爭이란 浪費가現實로 行하지안는限 天井不知의 物價昂騰이 잇기어렵다는結論이나온다。

× 그러면問題는 今後의物價는 어떠케될것이냐? 日本에잇서서는 世界的高物價傾向이라지만 膨大豫算과 增稅와爲替管理強化로 物價高騰을 政府가成長시킨것이 事實이요 世界的原因以外의 國內原因에依한物價高는 政府가抑制코저함이當然하다면當然타할수잇다。

× 東京商工會議所調査 四月中의都賣物價는 다시上昇運動이顯著하여 大幅의奔騰을 告하야 總指數(昭和五年基準加重平均法에依한것)는 一五五、〇으로 前月에比較하야 五分七厘의 奔騰이오 大正十五年一月以來의 最高物價水準을 示現하엿다 이를國內商品과 國際商品에 對하야 보면 國內商品指數는 一四〇、五로 前月에比하야 一分二厘의騰貴이며 國際商品의 輸出品指數는 一二六、一로 九厘의激騰에對하야 輸入品指數는一八五、七로 二分五厘의 大幅騰貴를 示하엿다。同月의 物價騰貴의 主因이된 重要한商品을 舉하면 如左하다。

▲國內商品에잇서서는 丸鐵二割七分六厘、洋灰酸、石炭一割六分二厘、麥酒一割一分七厘、曹達一割一分六厘、酒精九分七厘、大麥八分九厘、코ー크스五分八厘、米三分四厘의 各其騰貴이다

▲國際商品의 輸入品에잇서서는 銑鐵二割七分의 暴騰을筆頭로 米松角材一割六分七厘、揮發油一割二分、重油一割五分、大豆油粕八分三厘、알미늄 七分三厘、石炭五分三厘、小麥四分二厘等의 各其騰貴를보앗다

× 以上과가티 同月의 物價는 依然한 世界的物價高의 影響을 바더서 輸入品의 騰勢가 顯著하얏다。國內商品은 輸入品騰에加하야 國內工業의 活況、海運界의 活況、農村經濟의 回復、其他生產力의 擴張等이 主因이되야 實需要의 增大傾向을 招來한것과 國內品의 割低觀이 擡頭되야 買氣가 자못旺盛하엿기때문에 前月二分三厘의 昂騰에 次하야 同月은 二分二厘의 騰貴를 보엿다 그러고 下旬에 이르러는 米國財界의 動搖를 反映하야 英米物價反落、政府의 物價抑制對策과 貿易不振等의 念慮等으로 諸商品市勢는 高價後의 一息狀態를 呈하고잇다。

× 調査商品中 比前月騰貴된것은四十八品、下落十五品、不變十七品으로서 四月物價指數를 分類에依하야 表示하면 如左하다。(昭和五年基準加重平均法에依함)

類別	四月	前月比較騰貴率%
總商品指數(八十)	一五五·〇	五·七
穀物(七)	一三七·〇	三·八
食料品(十六)	一三一·九	〇·九
纖維品(廿三)	一五一·〇	二·〇
金屬品(六)	二三三·〇	一九·八
建築材料(六)	一三一·〇	五·〇
工業藥品(六)	一二六·二	三·〇
肥料(四)	一三五·〇	八·三
燃料(五)	一二八·九	六·一
其他(七)	一〇四·三	一·七
國內商品(三十)	一四〇·五	一·二
國際商品		
輸出商品(廿一)	一二六·一	〇·九
輸入商品(廿一)	一八五·七	二·五

(계속)

全面的으로 國家統制强化

輸入統制必要로 遂! 貿易管理

國內生產增加로爲替安定企圖 當局、基本調査에着手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 膨大豫算과 生產力擴充政策遂行에伴한 輸入激增을 抑制하고 爲替市勢의 安定을 圖키 爲하야 輸入爲替附加稅에 依한 不急品의 輸入抑制를 斷行키로되엇는바 當局의 보는바로는 本年의 貿易入超額은 三億圓程度에 達할모양이라하야 七月末을 期限으로한 許可制의 延長과 金現送에 依하야 本年은 爲替市勢의 維持工作이 一應充分타하드래도 明年度의 豫算膨脹國防的物價高를 豫想할境遇 一時的措置에 依하야서는 爲替水準維持가 困難케되기에 至하얏다。그리하야 爲替市勢動搖의 原因이되는 國內生產不足에 伴한 輸入增을 抑制키 爲하야서는 生產力擴充의 見地에서서 輸入統制를 行할것이라하야 大藏省內에서는 根本對策으로서 貿易管理에 關하야 基本的 調査에·着手할意向이다。即現在의 一部商品의 輸入抑制는 다만 爲替維持政策上의 觀點에선것으로 生產力擴充을 積極化할境遇에는 輸入商品或은 그代用品을 國內或은 滿洲國에서 生產增產을 講究할必要가잇고 明年度에는 商工省에서 貿易管理를 實施하야 爲替水準은이에 依하야 漸次的安定策을 講究할情勢에 至한것으로 觀測되고잇다한다

重要產業칼텔 强制設立意嚮

【東京電話同盟】產業統制의强化는準戰時體制와 物價暴騰抑制의必要로 各方面으로부터 要望되고잇는데 商工省에서는 右傾向에 鑑하야 來特別議會까지에 重要產業칼텔强制設立에 關한法律의立案을 急히하고잇다 即現行重要產業統制法은 產業合理化의 一方法으로서 制定된것으로 그精神에 잇서서 生產販賣의 自主的칼텔 設立을 目標로 한것이다 其後第六十九議會에서 公益規程을加한等 多少消費者本位로 改正되엇스나 現下의政治經濟情勢에 適치안은缺點이 痛感되기에至하얏다 그리고 그가장根本的인缺點은 重要產業法에잇서서는 自主的으로 統制를組織함에 止하고 必要한部門에잇서서는 同法의 適用을行할수업고從하야 鞏固한法的强制에依한 統制力이重要產業部門全般에 加하지안은 點에 잇슴으로 商工省으로서 먼저이點을고치어 政府로하야금 必要가잇다고認하는 重要產業部門에 칼텔을 强制的으로 設立케하야 生產販賣의 重要事項에 關하야 政府에命令權을保留하고 境遇에 依하야서는 價格에對한 認可制도採用할意向이다 右立法에當하야 現行重要產業統制法의 改正에依할지 或은따로이 單行法의 形式을取할지는 아즉未定으로法律技術上 今後愼重히 考究할必要가잇다한다

簡保保險金額 二億圓台肉迫

朝鮮簡易生命保險의 四月末現在契約數는 日本內地人二十六萬一千件、朝鮮人七十五萬六千件合計百二萬七千件 其保險料月額百四萬九百圓 保險金額一億九千五百八十二萬四千圓인데 四月中에新規契約數七萬八千十三件 其月額保險料 八萬四千三百六十三圓 保險金額一千六百二十五萬七千百二十六圓이激增되엇슴으로 五月中旬에는 第一次目標인 保險金額二億圓을 斷然超過하리라한다

『小額債券』 朝鮮도發行論

最近朝鮮內의 資金緩傾向에鑑하야 朝鮮內中小資金及企業利潤을 開拓할것으로 이方法에 依據할時는朝鮮內의 最近의經濟力으로보아 적어도 年額一千萬圓乃至一千五百萬圓은 資金化가 可能하리라한다 勿論이에는 割增債券의可否와右債券發行의 利害得失等問題가잇스나 朝鮮內의社債金融이 全然處女地인事實로보아 이開拓을爲하야서는 小額債券發行이 當然考慮되는터이라한다

全朝鮮銀行大會 六月十一日開催決定

第十一回全朝鮮銀行聯合會大會는六月十一日 京城銀行集會所에서 開催키로 決定하얏다 當日은 總督府로부터 林財務局長以下 關係官이 出席하는外에 大藏省 拓務省에서도 關係官의 出席을 求코저 目下 折衝中인바 議題는 未定이라고

金融硬化益濃厚

預金減으로貸出警戒

朝鮮內 金融界는 表面平靜裡에推移되나 內面的으로는 依然金融硬化의 基調에變化가업고 去益硬化되는 機運이 濃厚되는中이다 即 各銀行이모다 預金의增加率이 적어 銀行에依하야서는 前期末보다 減少되는곳도잇스며 또殖銀等社債市場의 梗塞으로資金的으로는 相當히 窮屈한모양임으로 一般으로 資金不足의 傾向이 各銀行共通의 苦惱로된 一方 資金의 需要는 所謂朝鮮의 躍進景氣의上昇으로 倍히旺盛하며 物價高에依한 貸出額의 增加、諸會社의 拂込徵收等 資金은 去益需要되는 情勢이다 各銀行이모다 資金惡化로 貸出을 警戒하지안흘수업고 不得已 警戒的自衛手段을 講究코잇서 金利等도 反騰傾向으로 金融界는全面的으로 硬化의 一途이다 今後更히이 情勢가 繼續되면 相當히 深刻한 問題를 發生할지도모른다고 憂慮되고잇다한다

景氣明暗二相 金融硬化繼續

◇…殖內一銀支店長談

景氣는 軍需景氣인데 全國的으로보면 이景氣에는 明暗二相이잇서 跛行的이것이다 即大體景氣가조흔것은 東京、大阪、名古屋、神戶、關門이오 景氣가不良한것은 北海道、東北、九州、中國으로 明暗相半이라할것이다 金融界는 豫想外로 硬化되어잇서 大體月央은平調이나 月末、月初는强調로돌아 一錢一厘乃至一錢一厘五毛까지 昂騰하얏다 이金融引締狀態는 生產設備擴充에依한 事業資金需要가 實際로만흔等의 事情으로 相當히永續性이잇는것이다 政府資金의支出等이 잇스나 直時消化될것이다 起債市場은旣發債券의 賣行이非常히不良하야 容易히不活潑한데當分消化는可望이업다

手形交換增加

四月二十六日부터 五月一日에 至한京城手形交換所의 手形交換高는 三萬七百四十六枚 二千五百三萬五千七百十五圓으로 前週中에 比하야 二千二百六十一枚 百二十萬二千三百六十七圓의各增加이다

朝銀保證準備 擴張必要痛感

朝銀의保證準備 擴張은 多年의懸案임에 不拘코 今日까지實現의 機會가업서 그대로왓는데 最近의 朝鮮金融事情은그實現을 絕對的으로要求하고잇다 即從來 日本內地 資金의 流入에依하야 適當히 資金需給의 빠란스를 取하던 金融界는最近 日本內地 長期金融市場의 梗塞으로 日本內地資金의 流入이 업고 朝銀券發行에 依하야 간신히 이것을補充하고잇는 狀態인데 朝銀은 最近은 繼續하야 限外發行하고 여에備하고잇지만如斯한情勢가 今後依然히 繼續되는限 現行의朝銀發券制度로는不充分하며 此際朝銀은 發券銀行本來의使命에서 中央銀行으로서의機能을遺憾업시 發揮할必要가잇서 懸案인保證準備의 擴張을第一먼저實現할必要를 痛感키에至하얏슴으로 金融界에서는 切望코잇다한다

寸鐵

○貿易管理로前進 投機輸入이 만허도 걱정이지만 國內生產으로 需要를채우지못할때 허노코 輸入만하으면 그뒤에 올것은 더큰일

○「適宜得當」이란 萬事에참으로어려운일 이것을 어떠케잘 해갈는지?

○全面的으로 國家統制强化 一志一斤이란爲替水準을 維持코저애쓰는 爲政當局의苦心은여간아닌모양

○世界的으로 「金」問題가 軍縮만못지안케 떠들게되것도注目되는일

○世界經濟여 너의가는길은?

取引停止

(四月二十日) 京城府鐘路一丁目 德本自轉車店 禹春根 ▲京城府元町一丁目二八 小林高志 ▲고무靴製造業京城府和泉町二〇七 合資會社富永고무 代表社員 德永德煥 ▲京城府鐘路二丁目一〇〇 文復煥 ▲住所職業不詳 李洲傑

朝鮮化學에서는 多獅島에工場建設

東拓과森永合作의 朝鮮化學工業(五千萬圓)의新設은 大體兩者折半出資로內定되어 工場은多獅島에建設키로하고 三十萬坪의用地를買收한바 事業은 ▲아루미製鍊▲가ー바이트製造▲石灰窒素를第一次的으로 着手하리라고

三陟開發會社에서 石灰窒素工場着工

三陟開發會社에서는 三陟北坪里에十萬坪의 用地를 買收하야工場建設準備를進行코잇는데 近間着工키로되어 目下請負指名者를銓衡中이며 工場能力은 石灰窒素年萬噸이라한다

大藏省辭令

【東京電話同盟】

從四位勳三等 和田正彥 株式會社臺灣銀行副頭取被仰付

吉田勉 依願株式會社臺灣銀行副頭取被免

經濟界消息

○日、伯兩當業者協議會=【大阪電話同盟】日本、智利兩當局間의 貿易促進에 關한 智利經濟視察團과 關西側當業者等의 第一回協議會는四日午前十時半大阪綿業會館에서開催하얏다고

○商銀惠山鎭支店十七日開業=商業銀行의 惠山鎭支店은 開設準備가되어 來五月十七日부터開業키로 決定하얏는데 同行專務는 十二、三日頃京城發 同地에出張、支店開設披露를할 豫定이라고

○朝鮮商議總會=朝鮮商工會議所에서는 六月中旬定期總會를開催할 豫定으로 全鮮各商議에對하야 五月廿五日까지 提案을 照會하얏다고

株式 買氣擡頭 昂進

今日의市勢【四日】

前場閑散 總選擧結果를 豫想과가태서 何等新材料가 되지못하야 昨日來의 堅味가되엇스나 如何튼財界情勢에는 變化가업스나 政變과가튼突發事件이잇스면 그에伴하는 統制强化는當然豫想치안흘수업다는데서 一抹의不安을숨겨 買方은觀望裡에待機하고잇는形便이며 賣方도더퍼노코 突込할수는업서서 暫時손을 미추게되매 場面은閑散의 極이오 市勢도 不動의保合으로終始하엿다

後場昂進 後場은 鐘新은一圓高나 東新、大新不變裡에寄付한後 買氣擡頭하야 大新高를筆頭로 鐘新、東新도 一步前進을示하엿다

買氣合의商勢

政局은 今後微妙한 動向을볼것이나 그豫測은 困難한것을 環境不透明에依한 氣迷는 免키 어려워 極히沈滯閑散한 場面을 보이고잇스나 纖株를 中心으로押目買的人氣는 依然强하야 相當히 底堅한維移를보이고잇는것은 注目되는일이다。二三十圓의 捧下를演出한것만큼 低價纖도 必要하고 또環境의 情勢도 雙方이갈작히 積極的으로나서지못하는理由도여기잇는것이다。如何튼雙方이모두 어떠新動機에 接하지안코는 動하지안흘것이니 急轉下한 日은 保合일것이나 急轉下한市勢이니만치 相當한 戾를 보일지도 하다고 强氣는 말하는데 今後 一、二日의 動向이

國債 無風狀態、保合

東京【東京電話同盟】政局은後想難으로 買氣가 全혀업서繼續하야 無風狀態로終了하고 賣物은 米貨六分半이 換金賣로三十錢下押한程度이오 長期甲號와二回四分利가 多少堅味를보엿다 ▲甲五分利一〇一、六五 ▲佛貨一九七、四五

▲大阪 ▲甲五分利一〇一、六五 ▲第三回五分一〇二、四五 ▲四分半い ▲四分半は一〇二、三八 ▲二回四分利 一〇一、八二 ▲第三回四分利一〇一、九五 ▲三分半に九八、〇三 ▲佛貨一九七、四七 ▲米貨六分半 六五、〇〇 ▲滿洲公債 一〇〇、三三

實物前場取引

▲朝和木材新 五八、〇〇 ▲日滿亞麻(二十五圓拂込) 三三、一〇 ▲東滿洲 三二、四〇 ▲日曹鑛業 三三、五〇 ▲朝鮮開拓 二六、〇〇 ▲滿洲煙草 一七、八〇 ▲九州曹達 五四、五〇 ▲鹽水港製糖 一二、〇〇 ▲足利紡 六五、〇〇 ▲國產自働車 一九、〇〇 ▲小林鑛業 八八、〇〇

雜株는堅保

市場人氣가 沈靜을極하고잇는만큼 物色買가 不絕이라하나 賣買共히 活潑치못하야 雜株는 堅强한 保合으로 거의 不變商狀이엇다。東邦人造의 入高인 四九、八과가티 少高된者도 不無하나 纖維株는 大體 保合이며 電力株는 도로혀 軟狀으로 部分的으로 少弛이며 東亞煙草의 八十錢高、滿洲煙草의 四十錢高또는 北鮮製紙의 五七、八을 보인것等 特別한 堅味를보인것도 잇스나 電工新의 五十錢少弛、大陸製鋼의 五十錢低、日本데질은 第二가 八十錢低로 一五、一를 보여 軟狀이된者도잇스나 鑛業株等 諸株는 堅保를 繼續하고 잇섯다

期米 人氣堅强 續騰

前場亂調 今朝阪地三十四圓八十錢인데六丁高를撥하고 當은二圓六十二錢인三丁高 中은二圓九十錢인三丁高로 先限은 丸ッ買와 木丸瀨의 賣로 三十三圓十四錢인 十一丁高로場을始한後 阪地二、三節八十五錢의續高를伴하야二三節十五錢을보이고 阪地七十九錢으로小弛함에딸아 ○六錢으로下押하러니 阪地八十錢臺의返戾를擧로 ○八錢까지小戻하엿스나 場面은意外軟化하야七、八節○五錢으로 結局、阪止六十四錢을보고 ○九錢에止場하다

後場頑强 後場은 三十三圓十錢인 一丁高로始한後 漸騰步調裡四節十四錢으로 五節二十錢에올라 頑强하엿다

市場六感

(株)…政府는 貿易管理와 統制强化를 斷行하기爲하야 基本調査에 着手한다고▲前者의 株界를 어지럽게한者도 이것이어니와 今後에도 이것만은 極히 警戒할일▲勿論 어떤意味로는 이미織込되엇다고도볼수는잇스나 마츰내 實施하게되는때에는 相當한 波瀾을未免할모양▲그러나 統制의程度는 亦是 今後에도 問題일것이오 貿易管理에 이르러서는 자칫하면 反對의結果를 나흘는지 모르므로 政府가 겨누는點이 꼭成功될지 그것만은疑問▲아무러튼目前의小波動은如何튼 時間的으로相當한時日이 經過하기前엔 安心買는어려울듯

(米)…昨朝에는 二十一丁突飛、今朝에는十一丁突高!一高後의 一押은 克치못하나 反撥力은 依然旺盛▲中限의大買物을 擁抱한 丸大店은 先限에는賣方針을 取하는모양이니 結局은 兩建式▲五月一日現在米의 發表에 對하야는 아직前回보다의 增減如何를 말할수업스나 이번의 發表는 弱材化하지안흘는지 몰라▲近日은 各地를 通하야 地方側의賣往가 續至하는 光景 그래서 東阪兩地는 地場買 來客賣의 場面이오 當地亦그러한 觀이 不無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桑名松本은 朝來中先의新規賣에 餘念이업섯는데 蓬萊賦追과 吉田雅義의 根據賣이며 上桶의 連節賣는 松本의玉이라고보고잇는데 同店은 이를 아니되어 朝鮮米及蓬萊米의移入을더히四百萬石으로 假定하더라도結局殘米는 四百五十萬石程度밖게아니될것인즉 民間米는 皆無의狀態를 免키難하리라는商談도업지아니한다 果如何?

一高後엔伸惱 結局은强保合

新甫渡會後淡池는 四千餘丁當地는 三千餘丁의反撥을 示하더니 高値에는 賣方의警戒로 또한伸惱하야結局 保勢의觀을呈한다 要하면 今回의反揚은 物價抑壓政策을 發表한 政府로서 米에關한對策은 따로考慮할 必要가잇다는 것에 基因한바이나 高價에는 最近公定米價의 障壁이잇는만큼 買方는 警戒를加하지안흘수업다 最高線을 突破하지안흘수업다

殘米發表期待

去三月一日現在 日本內地의殘存米는 四千六百八十七萬二千餘石으로 豫想外의 減少量을示하엿슨즉 其後三、四兩月의 消費高를 每月五百五十萬石 合計一千百萬石이라 假定하면 五月一日殘存米는 三千五百萬石으로볼수잇는데 그동안 朝鮮米及臺灣米의日本內地移入이 百五十萬石은 無難하엿슬것이므로 結局三千六百五十萬石의 殘米를 보게되다 그러고보면 五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의 六個月間消費는 [illegible]

正米 產地高로 堅强

京城保合 定期의 强調와 實物이 薄으로 市況은 堅强裡에 保合이어다 ㊁三等 三三、〇〇 [illegible] 一等白米 [illegible]

仁川一息 定期의 頑强을 움겨 當用側의 買氣가잇스나 賣物薄으로 賣買는 稀薄히 進捗되지안는다 [illegible]

釜山堅調 定期의 强調로 賣方의 態度가 强하야 賣物은 極少하다 一般으로 割高感되어 採算的買物이업고 겨우當用小口買뿐이엇는데 市勢는 又復十錢高가되엇다 ○四等三三、〇〇 一等白米 [illegible]

大邱續伸 產地高와 期米堅强을보고 賣物은 자못 적어 賣買는極히 閑散하나 市勢는又復十錢續高를 示하엿다 四等三三、七〇 [illegible] 一等白米 一三、〇八

群山堅强 日本內地의買氣는 月初임을不拘코 不振이나 定期高로 市況은 依然히 堅强하다 產地는 先高觀이强하야 强硬히버티고잇다 [illegible]

木浦同調 期米는 堅調를보이고잇스나 急硬化한後인것만큼 高價警戒가 强하고 兼하야 日本內地入往薄으로 市況는保合이엇다 [illegible]

今日財界 四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 京城一等白米 [illegible] /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 一斤價三等 [illegible] / 고무FAQ [illegible]

◆株 朝新 / 東新 / 鐘新 [illegible]

◆商品 綿絲先限 / 大阪三品 / 棉花先限 / 人絹先限 / 砂糖先限 [illegible]

海外經濟 三日

[illegible]

銀行券 三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東京 [illegible] ◆大阪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金銀價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本絹交織人絹

◆京城本絹布◆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實買高◆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算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桑野取引所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電話長六三九番

金·銀 德 白金 京城德力 高價買入 電話本局②3939 1572 京城府明治町 振替京城234 應酬販賣引換金代

期米 康益夏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期米 福 仁川本町 吉村榮左工門商店